

VOL.
186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APRIL-MAY
2026

아트뷰 2026 APRIL-MAY

VOL.186



THE LIGHT AND GRAIN



테마스토리
2026 동시대미감전 미리보기

아티스트 토크
회화 작가 김덕용

미리보기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오후의 콘서트>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예술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문화재단



클라라 주미 강 & 김선욱

©Marco Borregre



티켓 R 80,000 / S 60,000 / A 4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5.27.WED
7:3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morning concert

SEONGNAM atrium 2026



성남아트리움
모닝콘서트

웅산
김준수
고상지 트리오



5.27 WOONG SAN

7.22 KIM JUN SU

9.30 KOH SANG JI TRIO

티켓 | 전석 20,000원

예매 | NOLticket 1544-8117 문의 | 031-783-8000

WEDNESDAY 11a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SEONGNAM
atrium
2026

빛과 결, 自生之美

김덕용

*The Light and Grain,
An Aesthetics of Emergence*

2026.4.10.

동시대미감전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026.6.7.

예술적 여정

BIG ART LOOP

거대한 작품의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는 노인, 푸른 잔디밭 위 구조물 사이를 오가며 숨바꼭질하는 아이들, 도심 속에 등장한 용의 역동적인 형상에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Big Art Loop'는 그간 전시를 규정하는 여러 전제를 단숨에 뒤집는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역에 대형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이를 하나의 루트로 엮어 이동 자체가 하나의 관람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약 55km에 이르는 경로는 해안과 공원, 다양한 장소를 따라 이어지며, 사람들은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각자의 속도와 동선 안에서 작품을 발견하게 된다. 특정 전시 공간으로 이동하는 대신, 도시의 일상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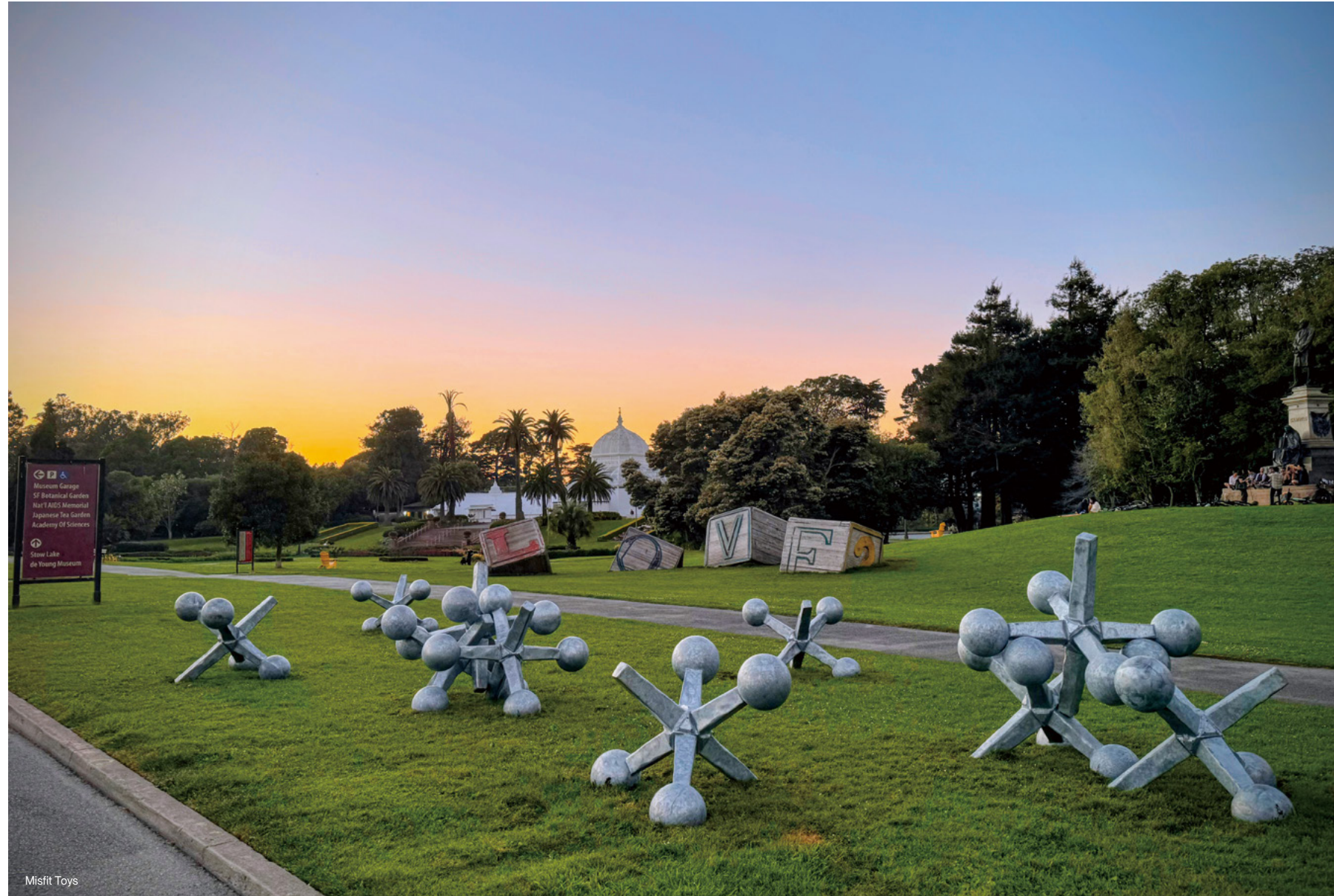
빅아트 루프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이미 제작되었지만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즈브란데이 재단(The Sijbrandij Foundation)은 창고에 머물러 있던 대형 공공미술을 도시로 옮기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작품은 위치에 따라 새로운 맥락을 획득하고,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가진 삶의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이 전시가 완성형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생동한다는 점이다. 현재진행형으로 새로운 작품 설치가 이어지며, 루트는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 작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마르코 코크레인(Marco Cochrane)의 높이 13미터에 달하는 인체 조각 <R-Evolution>은 공공 공간 한가운데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Burning Man>에서 시작된 이 작품이 도시로 옮겨오며 표현 방식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그런 소통의 연장선 위에서 작품의 의미는 확장되고 매 순간 새로운 작품으로 탈피를 이어가게 된다. 해안가에 설치된 마티아스 그마흐(Mathias Gmachl)의 <Echoes> 역시 흥미로운 사례다. 푸른 고래를 형상화한 이 조각은 단숨에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바다를 불러와 공간을 확장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이 프로젝트는 민간 재단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 이 공공예술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순기능에 주목하며, 예술이 정체되어 있던 도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유쾌한 분위기를 전환을 감상해 본다.

글 임보연 |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 사진 제공 Big Art 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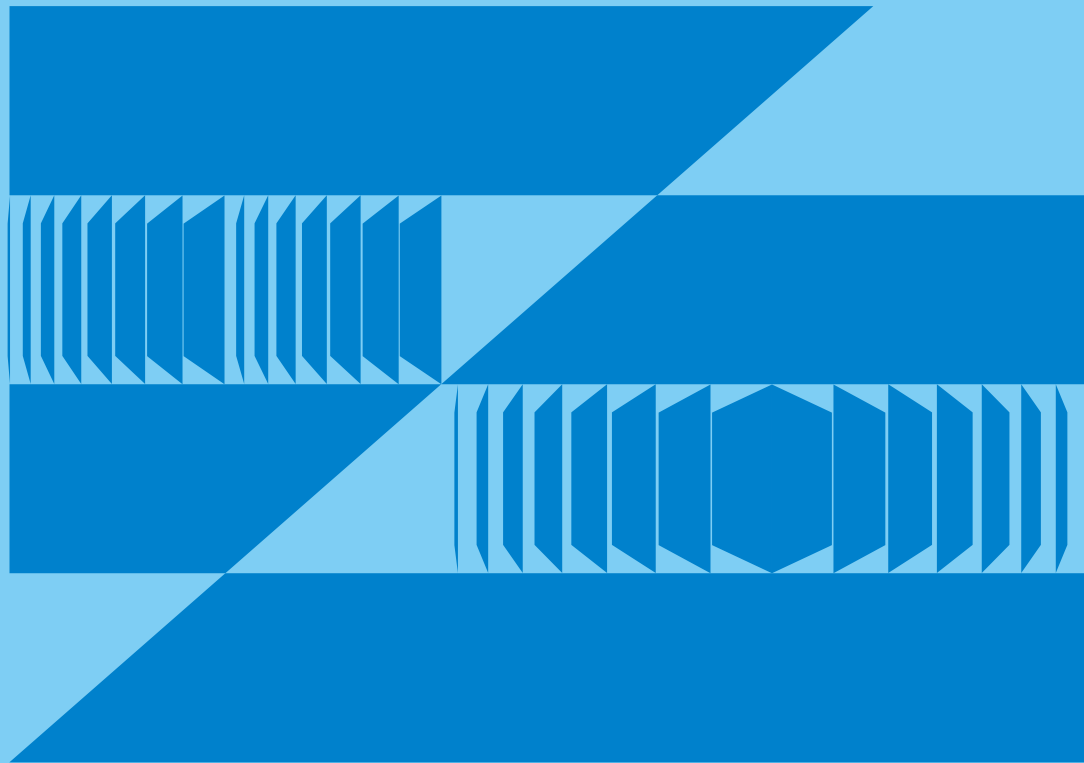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 빅아트 루프의 일환으로, 골든 게이트 파크 잔디 위에 흩어진 거대한 '잭스' 조각은 놀이와 휴식, 교류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든다



CONTENTS

2026

APRIL & MAY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6년 04+05월호

통권 186호(비매품) 2026년 3월 31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9.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장동한
 기획·편집 손세은 seson@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30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 인쇄 문덕인쇄

ON THE COVER

표지에 등장한 두 명의 예술가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Marco Borggreve)입니다.



<아트뷰>
웹진 바로가기



<아트뷰>
뉴스레터 구독하기

THEME STORY

- 08 테마스토리1 미리보기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 12 테마스토리2 아티스트 토크
회화 작가 김덕용
- 20 테마스토리3 칼럼
한국미의 대가 김덕용의 작품 세계

VIEW

- 28 미리보기1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32 미리보기2
클라라 주미 강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 36 미리보기3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38 미리보기4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 40 미리보기5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 42 미리보기6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
- 44 미리보기7
소장품주제기획전II <0과 1 사이>
- 46 인터뷰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 아나운서 한석준
- 50 깊이보기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II 프랑스 상송

CULTURE

- 56 오페라 산책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매혹의 아리아들
- 62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그녀>
- 66 BOOK
이 한권의 책

INSIDE SEONGNAM

- 70 성남의 예술가
하다 아트컴퍼니 연출가 이준호
- 76 OPEN ACADEMY
성남아트리움 문화예술 아카데미
- 78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 79 4·5월의 큐레이션
- 86 성남문화예술계 소식
- 91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 92 성남문화재단 공간 탐구생활: 성남물빛정원

VOL. 186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람데뷰 울트라 화이트, 미스틱)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MPORARY AESTHETICS EXHIBITION

동시대미감전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는 목재와 자개 등 전통적 재료를 통해 한국적 미감과 깊은 성찰을 담은 김덕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동시대 미술을 함께 짚어 봅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진행 중인 작업과 그가 추구하는 '삭힘의 미학'에 대해 직접 들어 보고, 한국미에 대한 고유한 조형 언어로 세계를 향한 지평을 넓혀온 김덕용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08

THEME STORY 1 미리보기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12

THEME STORY 2 아티스트 토크
회화 작가 김덕용

20

THEME STORY 3 칼럼
한국미의 대가 김덕용의 작품 세계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빛과 결로 그려 낸 순환의 우주

성남큐비미술관의 대표 기획전
 '동시대미감전'은 공간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들을
 조명하며 우리 시대의 주요 예술적
 담론을 시민과 함께 나누어 온 전시다.
 올해 동시대미감전에서는 회화 작가
 김덕용의 개인전 <빛과 결, 自生之美
 자생지미>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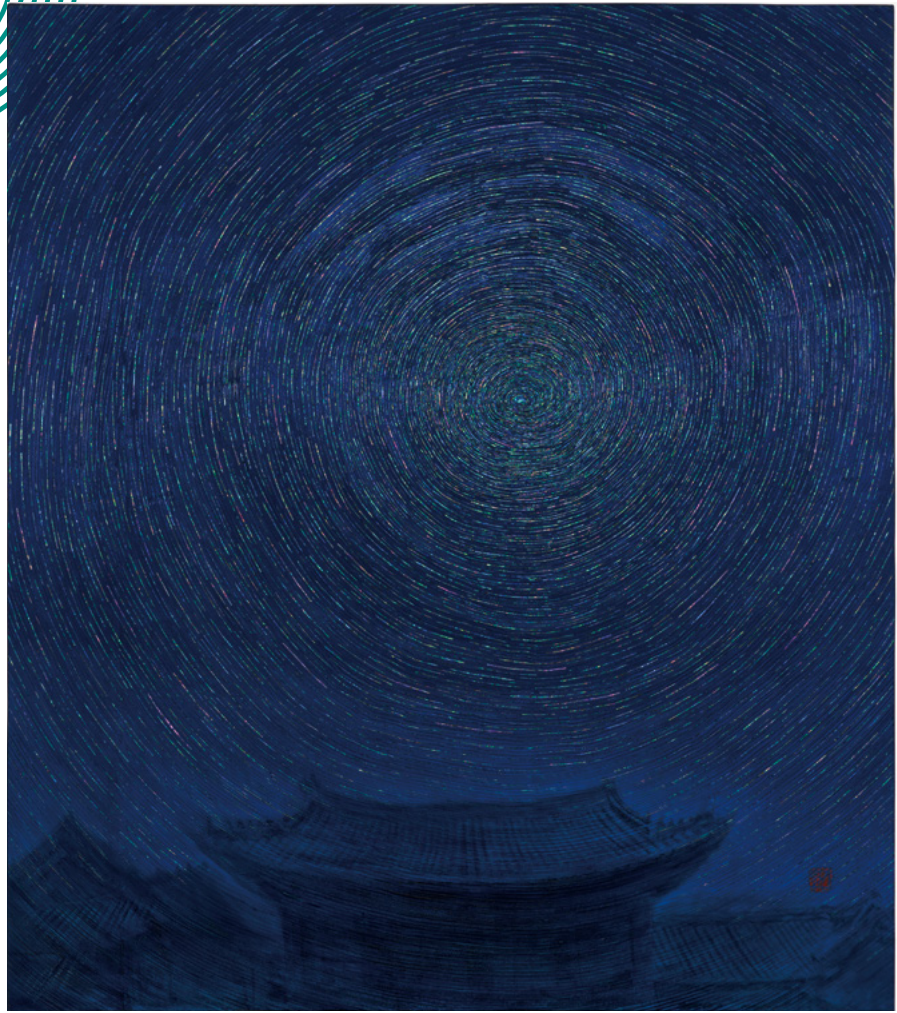
글 백혜원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흔히 미술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면 먹의 번짐이 살아 있는 수묵화나 실경(實景)을 담아낸 진경산수화를 떠올리곤 한다. 또한 그 흐름이 과거 특정 거장들의 화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김덕용은 이러한 고정된 관념이 오히려 한국 미술이 지닌 무궁한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미술의 장르가 특정 양식과 기법으로 고착되는 것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 왔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상대적으로 대중성과의 접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며, 틀에 갇히지 않은 독자적인 한국 회화의 흐름을 모색해 왔다. 작가에게 한국적 미감은 기술적 선택이 아닌 정체성에 기반한 태도이며, 그의 작업 전반은 이 인식 위에서 전개된다.



김덕용, <차경-Homing>, 2025, Dancheong and mixed media on wood, 240×180cm



1

1. 김덕용, <우주산수>, 2025, Mother of pearl and mixed media on wood, 130×160cm
2. 김덕용, <호-우주를 품다>, 2022, Mother of pearl and mixed media on wood, 180×195cm

나무와 자개로 그려 낸 한국적 조형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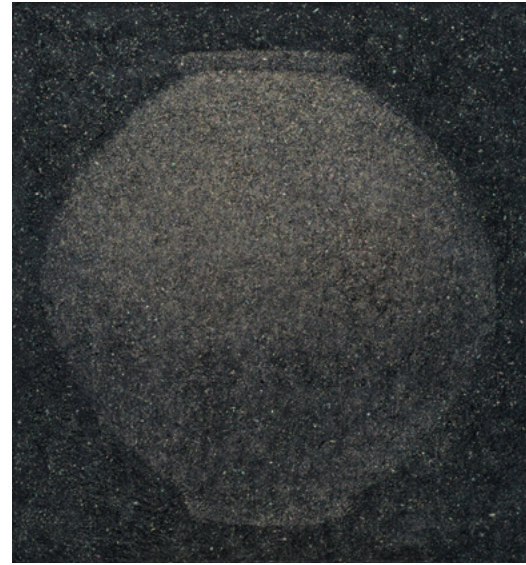
김덕용의 작업은 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인고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가는 종이나 캔버스 대신 세월의 흔적이 밴 나무를 직접 깎고 다듬어 화면으로 삼는다. 그 위에 단청 기법으로 채색을 더하고, 나전칠기 방식으로 자개를 붙인다. 재와 숯을 활용해 풍경과 우주의 이미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나무는 오랫동안 인간의 삶의 공간을 이루어 온 재료이며, 표면에 드러난 나뭇결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덕용의 나무 작업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건축과 장식 문화, 특히 단청에 대한 작가의 관심에서 출발했다. 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나무가 곧 종이다'라고 언급했을 만큼 작가는 나무를 회화의 바탕으로 인식한다. 선례가 거의 없는 작업 방식이었지만 다양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직접 목재를 파

고 그 위에 작업을 이어 오며 자신만의 방법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재료가 지닌 시간의 깊이와 물성을 현대 회화 안으로 끌어들이며, 한국 회화의 가능성을 자생적으로 확장하려는 작가의 신념을 보여 준다.

자개 역시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나무가 시간성을 상징한다면, 자개는 작가에게 그리움을 환기하는 매개체에 가깝다. 고향 집의 나전 가구와 어린 시절 즐겨 하던 구슬치기 같은 개인적 기억에서부터 밤하늘의 별빛에 이르기까지, 자개는 화면 속에서 다층적인 의미로 펼쳐진다. 관람자의 시선과 빛의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개의 색과 반짝임은 화면에 깊이를 더하고, 변화하는 감각적 층위를 만들어 낸다. 나뭇결을 따라 표면을 정리하고, 그 위에 자개를 올리는 반복적 행위 속에서 물질은 단순한 재료를 넘어 시간과 기억을 품은 화면으로 변모한다.

2



가 다시 돌아온다는 작가의 사유를 '순환의 산수'의 개념으로 담아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먼저 시간과 기억의 장면들이 펼쳐진다. 한옥의 구조나 책의 이미지, 빛처럼 반짝이는 구슬의 형상은 유년 시절의 순수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화양연화>라는 제목 아래 가장 맑고 영롱했던 순간의 기억으로 풀어낸다. 나무의 결 위로 스며드는 빛과 이미지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감각이 겹치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시간과 기억은 곧 생명의 기원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달항아리와 여인의 형상은 생명의 탄생과 순환을 상징하며, 인간과 자연이 맺어 온 오래된 관계를 환기한다. 이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한국적 미감의 출발점이자 삶의 근원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다.

이후 귀소(歸巢)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바다의 풍경이 나타난다. 나무와 자개가 만들어 내는 공간 속에서 바다는 생명의 또 다른 시작이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근원의 장소로 그려진다. 작품 속 바다는 특정한 지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원형적인 심상의 이미지에 가깝다. 자연을 화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借景)'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후 이어지는 작품들에서는 존재와 부재,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게 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숯과 재의 가루로 표현된 산수(山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고 남겨지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변화와 소멸,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흔적이 고요한 화면 위에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별과 우주의 형상이 등장하며 의미는 더욱 확장된다. <우주산수(宇宙山水)> 속 반짝이는 빛의 궤적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자연의 질서를 떠올리게 하며, 인간의 삶 또한 그 거대한 순환 속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 작가가 그려 내는 세계는 결국 생명이 시작되고 다시 돌아가며 이어지는 순환의 우주로 귀결된다.

김덕용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이루며 전시 공간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한국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조화하고자 했다. 그가 말하는 한국미의 확장은 결국 귀소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 삶의 모습, 그리고 자연과 우주로 이어지는 순환의 세계 속에서 김덕용의 회화는 고요한 빛을 발한다. <빛과 결, 自生之美(자생지미)>는 이러한 빛과 결이 만들어 내는 장면들을 따라가며 우리의 존재와 삶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26 동시대미술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자생지미)>

일시 4월 10일(금)~6월 7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2-9

김덕용의 작업에는 삶의 이동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광주와 서울을 거쳐 현재 성남 분당구에 정착하기까지, 작가의 삶은 여러 시간과 공간을 지나며 축적되어 온 여정과 같다. 숲에서 온 나무와 바다에서 온 자개가 하나의 화면 안에서 만나 새로운 형상을 이루는 모습은 어쩌면 작가가 지나온 삶의 궤적과도 비슷할지 모른다. 이러한 경험은 작품 속에서 생명의 탄생과 기억, 존재와 부재, 그리고 삶의 순환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며 작가의 조형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생명에서 우주로 이어지는 시간의 기억

이번 전시 <빛과 결, 自生之美(자생지미)>에서는 수십 년간 한국미에 천착해 온 김덕용의 작업 세계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모든 존재는 탄생 이후 자연, 곧 우주로 나아갔다

회화 작가 김덕용

나무는 어디서 왔고, 자개는 어디로 가나



한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소년이 그 근원을 찾아 헤매며
추적해 온 시간. 열병을 앓듯 투신했던 길이 수월했을 리는
없다. 다만 작가는 한국회화를 규정하는 관념, 미술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고 손쉬운 타협 없이 여기까지 왔다. 2026
성남큐브미술관 동시대미술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는 그 여정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그리움과 희망을 따라 펼쳐 온 작업들

반갑습니다. 작업실에 와 보니 그리시는 작품들이 얼마나 대작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전시 준비는 잘되어 가시나요?

이번 전시에서는 아주 초기작은 아니지만 대략 15년쯤 된 작업부터 신작까지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쉬운 작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작품의 크기와 재료, 작업 방식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해요.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힘껏 그리려고 합니다. 성남에서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 제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이곳에서 오랜만에 여는 전시라 더 뜻깊은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40년 가까이 한국미의 세계를 탐구해 오셨는데, 그 시작점이 궁금합니다.

출발은 평범했어요. 미술대회에서 상을 자주 받았고 자연스럽게 화가를 꿈꾸었습니다. 중학 시절에 상을 받고선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에 일찍부터 눈을 뜨고 몰두했어요. 대학에 진학해 동양화를 선택한 이유도 한국적인 것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화란 무엇인가를 한창 이야기하던 때였고, 내가 그 답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셨나요?

동양화를 배울수록 답답한 지점이 있었어요. 동양화의 전통 기법이나 재료 같은 것을 마치 수능 준비하듯 배우는데, 이게 내가 찾는 한국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이 나와 맞지 않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미의식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도, 석굴암 본존불에도, 목조 건물의 단청에도 있어요. 그것들을 어떤 기법이다, 장르다, 딱딱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관행이 어찌하면 한국미를 납작하게 설명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태도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지에 먹 대신 목재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려도 한국회화일 수 있다고 믿었지요.

형식보다 본질에 주목하셨군요.

최근 몇 년 새 전통 장르가 주목받고 민화에도 관심이 높아졌

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화를 형태로만 이해하고 재현하려는 시도도 많아 보여요. 까치와 호랑이가 등장하고, 책가방^{책가방}가 놓여 있으면 민화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한국미가 무엇이나고 할 때 그 본질은 정신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술에 은은하게 묻어 있는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제 관심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그 정신성을 제대로 담아내는가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조화롭고 은근하고 소박한 것들을 중시합니다. 작업을 끝내는 기준도 그거예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가.

나무, 자개, 숯 같은 재료를 고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 계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개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입으셨던 반짝이는 한복 치마에서 영감을 얻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재료를 선택했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나무 위에 자개로 여인을 그린 <자운영>²⁰²⁰을 보면 자개의 그리움이 직관적으로 와 닿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재료가 이 '그리움'의 정서를 품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의 물성은 저를 닮았어요. 재료의 의인화라고 할까요? 저는 자신과 재료를 일치시켜요.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목민 같다고 생각해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공부하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어요. 봉천동, 신림동을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성남이었지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시기는 격동의 시대였고 고생과 혼란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처럼 고향에서 대학을 다녀도 될 걸 왜 굳이 서울까지 갔냐는 말을 들으면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던 시절이에요. 제가 그리는 인물이나 풍경, 모든 소재에 그리움이 짙게 묻어 있어요. 그 감각이 재료의 물성을 만나서 생생하게 살아나요. 나무는 숲을 떠나 가공되었다가 쓰임을 다해 저에게 왔고, 전복이나 소라 껍데기도 마치 모성 같은 바다를 떠나 인간에게 와서 자개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와 나무와 자개, 모두가 떠나온 곳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김덕용,
<차경-블라인드>,
2026, Mother of
pearl and mixed
media on wood,
140×160cm

그 그리움이 빛과 결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승화된 건가요?

나무의 결과 자개의 빛은 시간의 축적이고 흔적이에요. 물질의 시간성은 제 작업의 핵심 테마입니다. 저는 나무의 결을 지나온 시간, 역사일 수도 있는 과거라고 해석해요. 자개의 빛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희망이고요. 삶은 과거를 품고 미래를 향하며 그 둘이 교차하는 지점, 오늘에서 의미를 찾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얽히는 감각이 빛과 결을 품은 재료로 표현되고 바다, 우주 같은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인물이나 달항아리 같은 사물에서 바다와 산수, 우주로 표현

대상이 확장된 것도 필연인가요?

예전에는 제 안의 아픈 기억, 과거의 어떤 장면들, 구체적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을 주로 그리기도 했어요. 혼란했던 시대의 상처가 작업의 주요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점차 더 자유로운 표현을 갈망하고 삶의 본질에 다가서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지요. 저에게 삶은 생명의 순환이에요. 무에서 태어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무로 돌아가지만, 보이는 모습은 사라져도 본령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존재하는 생명의 영속성을 그려 왔어요. 자개는 원래 있었던 바다를 향해 귀소하거나 우주의 별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미감의 근원

전시의 제목 '빛과 결'에 덧붙인 '자생지미(自生之美)'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제가 만들어 낸 혹은 발견한 아름다움이에요. 고향을 떠나온 저와 나무, 자개, 이런 요소들은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제 작업을 거쳐 혼합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앞에서 물질의 시간성이 제 작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무나 자개 같은 재료를 고르고 다듬고 색을 입히고 형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시간의 축적이에요. 이 점을 포착해서 느린 속도로, 숨을 불어넣으며, 삭힘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평론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주입된 감각이 아니라는 점을 더 주목하고 사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자적인 한국회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제 작업을 시작한 시기를 떠올려 보면 나무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회화와 자개의 접목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재료를 찾아 헤매고 공장마다 다니며 필요한 작업을 부탁했던 모든 과정이 처음 시도하는 일이니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또, 재료에 원하는 색을 입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국의 미를 찾는 데는 이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미술은 오직 수묵화, 문인화고 사대부의 그림이라는 관념이 굳은 상황에서 우리 미술을 좀 더 심화, 확장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덕용, <차경-용유도원>, 2017, Dancheong and mixed media on wood, 140×110cm





그간의 도전과 성취를 이번 전시에서 어떤 구성으로 펼쳐 보 이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성남아트센터라는 공간이 저에게 전해 주는 특별한 감 상이 있어요. 제가 뜨내기처럼 살다 정착한 곳이 성남이라고 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아트센터는 첫 삽을 뜰 때부터 지켜본 곳이어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작가는 전시를 앞두고 늘 전시장 공간을 해석해요. 큐브미술관의 형태를 볼 때, 한국미 의 근원을 밝히고 확장을 모색했던 그간의 작업을 가장 유기 적으로 구성해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영롱한 구슬에서 저의 유년 시절을 만 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절 저에게 구슬은 땅의 별이자 미래 의 꿈이었거든요. 이 작품이 <화양연화>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사유가 담긴 책 그림이 이어져요. 고정된 벽을 따라 나무와 자개, 각각의 변화를 펼쳐 보이고 마지막에는 바 다와 우주가 관람객을 기다릴 거예요.



저는 늘 국제성을 강조해 왔어요.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을 구분해서 우리 회화에 서구적 요소를 이식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국제성을 찾는 작업이에요.

한국의 미를 현대적이면서 글로벌한 감각으로 해석하고 확 장해 오셨어요.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내 것만 고집하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려서는 미술 작업 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의 미를 밝히고자 애쓴 것은 우리 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자는 국수적 의미가 아니에요. 저 는 늘 국제성을 강조해 왔어요.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을 구분해서 우리 회화에 서구적 요소를 이식해 오는 것이 아 니라, 내 안에 있는 국제성을 찾는 작업이에요. 물, 바다를 생 명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은 동서양을 넘어 통용되는 사상이 고 감각이에요. 우주를 과학의 세계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 교 육의 영향이겠지만,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집 우^우와 집 주^주를 사용하면서 '큰 집'이라는 감각으로 우주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의 정서를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를 초월하는 미감 을 만들어 내고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국회화의 자생성이 제 작업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가 되었 다고 할 수 있고요.

관람객을 위한 감상법을 추천하신다면요?

작가로서 작품을 보시는 분이 어떻게 감상하기를 바란 적은 없었어요. 제가 그림에 담은 물성과 정신성은 제 의도일 뿐이 고 관람객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요. 해석의 여지가 많을수 록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작업 여정을 전반적으 로 정리하는 전시이다 보니 더 기대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후에 국내외의 여러 전시 일정이 계획돼 있는데 그 성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지향까 지 주요 흐름을 한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 람객들께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을 함께 느끼시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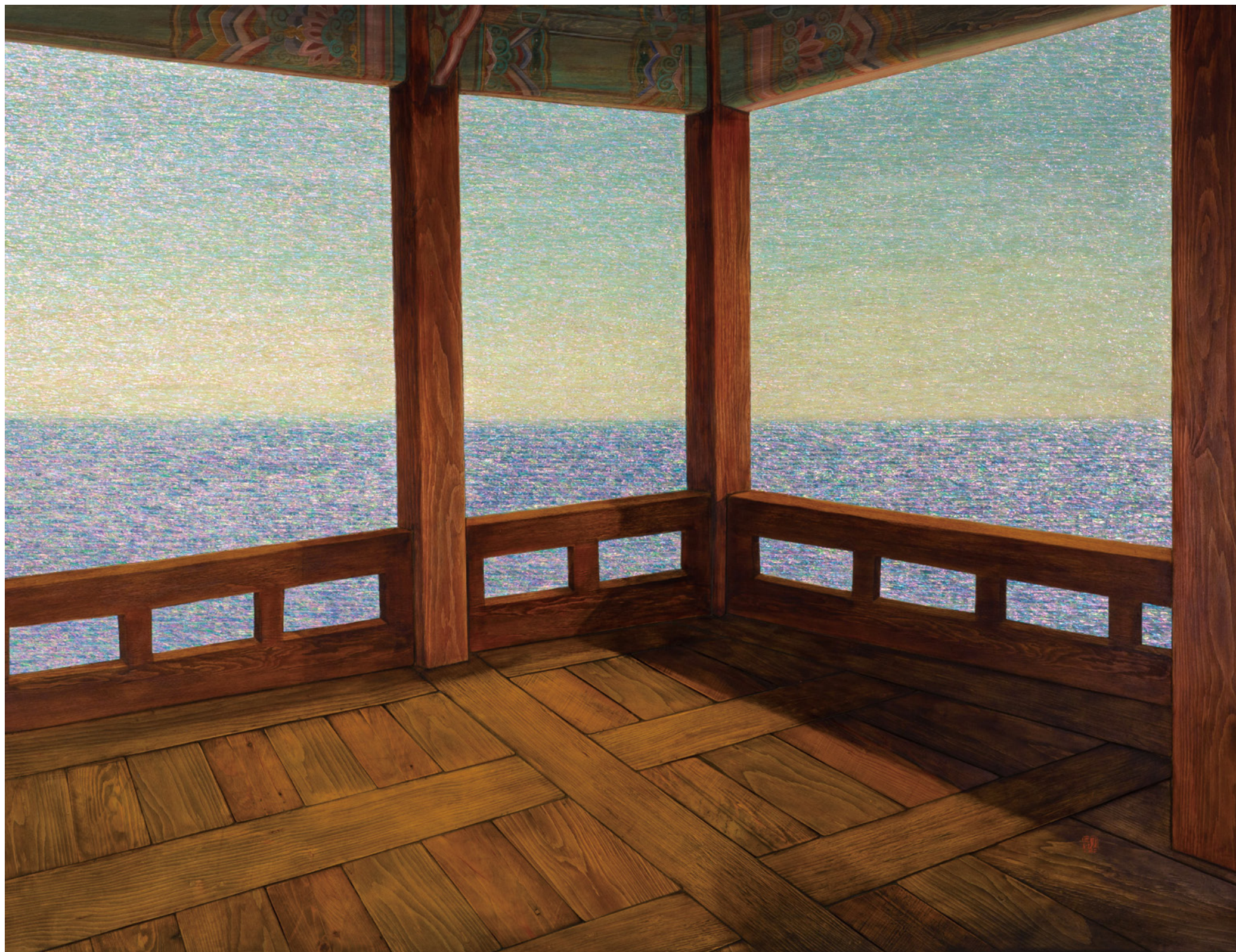
김덕용, <차경-시간의 공간>, 2022,
Mother pearl and mixed media on wood,
240×180cm

한국미의 대가 김덕용의 작품 세계

결 위에 머문 빛, 자생의 미학

김덕용의 회화는 재료로 기억되기 쉽다. 나무와 자개, 안료와 재, 금박 같은 물성은 단번에 시선을 붙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의 작업을 오래 바라볼수록 끝내 남는 것은 재료의 희소성이나 표면의 화려함이 아니다. 작가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한국미술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며, “한국미가 어떤 태도와 감각 속에서 국제화되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이다.

글 안현정 미술평론가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석사와 예술철학 박사를 받았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성곡미술관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1급 정학예사)을 맡고 있다.





김덕용, <우리들의 시간>, 2010, Danchoeng on wood, 100×120cm(each)

문인文인의 마음으로 다시 세우는 한국미

작가는 이 물음을 개념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손으로 더듬고, 몸으로 견디고, 시간을 쌓아 올리며 마침내 하나의 화면으로 응답한다. 그러므로 김덕용의 작업은 전통 재료를 활용한 동시대 회화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래된 감각이 오늘의 형식을 얻는 과정, 곧 시간의 축적과 기억의 침전, 노동의 밀도와 절제의 품격이 한자리에서 스스로 질서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생지미(自生之美)란 바로 이 자리에서 성립한다. 외부에서 이식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기억과 전통의 감각, 물성의 결기와 정신의 호흡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밀어 올리며 스스로 생겨나는 아름다움 말이다.

작가에게 창작은 새로움을 조금씩 발명하는 일이다. 오히려 오래된 것 속에 잠들어 있던 감각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작가의 화면에는 단절의 과장보다 연속의 숨결이, 파격의 구호보다 삭힘의 힘이 더 깊게 스며 있다. 정교하지만 과시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떠들지 않으며, 깊지만 닫히지 않는 이 조용한 밀도. 김덕용의 회화는 바로 그 느린 품격 위에서 자기 미학을 획득한다.



형사形似 너머, 마음의 필법

김덕용의 회화를 문인미학 안에서 읽는다는 것은 전통의 형식을 답습한다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인화의 기본 맥락, 곧 그림을 통해 한 인간의 심법과 격조, 삶을 대하는 태도와 내면의 호흡을 드러내려 했던 정신을 오늘에 맞게 되살리는 것이다. 문인정신의 본질은 재료의 순수성이나 양식의 정통성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물의 외형보다 그 안에 스민 뜻과 기운을 불드는 마음, 기교보다 심법을 앞세우는 태도, 그리고 삶과 예술을 하나의 결로 이어 보려는 자세에 있다. 그런 점에서 김덕용의 회화는 매우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문인적이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그림을 형상만으로 논하면 아이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論畫以形似, 見與兒童鄰)”라고 했으며, 또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라고 강조했다. 문인미학의 오래된 명제를 압축한 두 문장은 오늘 김덕용의 작업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

작가의 화면은 형상을 버리지 않으나 형상에 갇히지 않고, 기억을 품되 서사로 닫히지 않으며, 사물과 풍경, 인물과 우주

의 흔적을 드러내되 그것을 재현의 차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 오래된 사진의 잔상처럼 떠오르는 장면,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형상, 달항아리와 바다, 별의 궤도와 우주 산수는 모두 외형의 재현보다 내면의 울림을 앞세우는 문인적 시각의 현대적 변주다.

작가가 “머리보다 마음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은 감상적 수사가 아니다. 회화를 계산된 구성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통과한 감각의 진실이 형식과 만나는 일로 본다는 뜻에 가깝다. 그러므로 작가의 화면에서 한국화와 서양화, 회화와 공예, 구상과 추상이라는 구획은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본질은 오히려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읽고, 그 읽기의 깊이를 화면의 호흡으로 옮기는 데 있다. 김덕용이 문인화의 외형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문인정신의 현대적 계승자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가는 붓과 먹의 문법을 답습하는 대신, 마음의 결을 나무의 결로, 시의 여운을 자개의 빛으로, 내면의 격조를 화면의 품격으로 바꾸어 놓는다.

손의 시간, 적층의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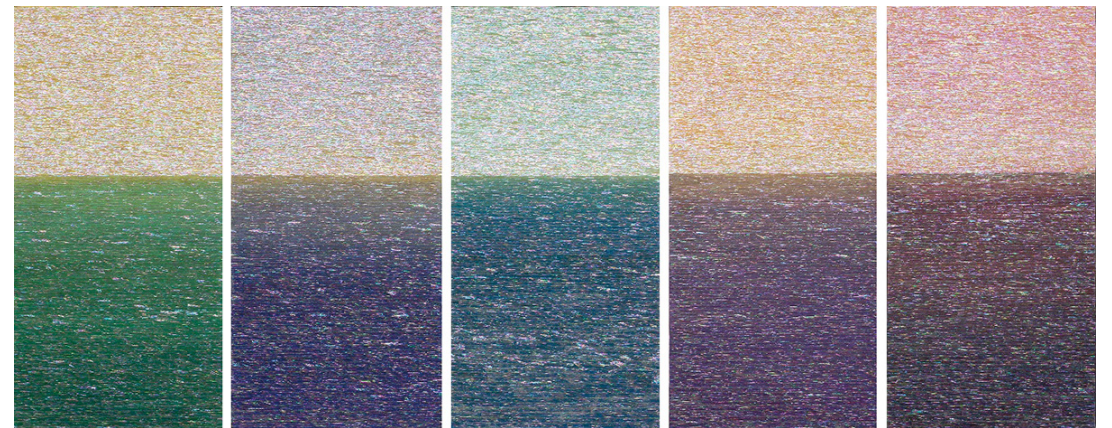
김덕용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것은 빛보다 노동이다. 작가의 화면은 한 번의 제스처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무를 고르고 다듬는 시간, 표면을 만들고 덜어 내는 반복, 자개의 방향과 빛의 각도를 끝까지 살피는 집요함, 안료와 재, 금박의 층위를 조정하며 마침내 하나의 호흡을 얻어 내는 집중이 화면의 안쪽 깊숙이 스며 있다. 이때 노동은 형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식이 스스로 생겨나는 조건이 된다. 자생지미가 자연발생적 낭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손이 견디며 쌓아 올린 시간 위에서 비로소 도달하는 생성의 상태로 읽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작가의 회화는 적층지미(積層之美)(겹겹이 쌓인 아름다움)와 만난다. 적층은 단지 물질의 층위를 뜻하지 않는다. 나무의 결과 상처, 자개의 광택과 떨림, 시대를 통과한 기억의 잔향,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정서, 생명과 귀소에 대한 사유가 한 화면 안에 겹겹이 놓이는 방식 전체가 적층이다. 작가의 말대로 결은 과거의 시간이고, 빛은 미래의 시간이다. 이때 ‘빛과 결’은 단순한 조형 언어가 아니라 시간의 구조가 된다. 나뭇결은 지나 온 삶과 역사의 숨결을 품고, 자개의 빛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염원을 비춘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는 한 점의 표면 위에서 동시에 살아 움직이는 것, 바로 그 긴장과 공존이 김덕용의 화면을 두껍게 만든다.

미술사학자 최순우(1916~1984)가 말한 ‘은근과 끈기’와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은 바로 이 대목에서 살아난다. 작가의 화면은 분명 정교하다. 그러나 그 정교함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는다. 표면은 반짝이되 번쩍이지 않고, 재료는 풍부하되 번잡하지 않으며, 노동은 깊되 허세를 드러내지 않는다. 치밀한 손의 개입은 끝내 자연스러운 한 호흡으로 가라앉고, 복합적인 물성은 오히려 담담한 울림으로 수렴된다. 이처럼 김덕용의 한국미는 전통의 외형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내면적 호흡을 오늘의 화면 안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서 생겨난다.

김덕용, <오션 랩소디>, 2020, Mother of pearl and mixed media on wood, 250×100cm(5pcs)



한국미의 깊은 문법, 세계의 지평

김덕용의 작업에서 한국미는 민속적 표정이나 장식적 표지로 환원되지 않는다. 작가가 끝내 붙드는 것은 한국미를 이루는 내적 구조, 곧 자연스러움과 담백함, 고요함과 소박함,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이 다투지 않고 함께 머무는 조화의 질서다. 이미값은 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화면을 조직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결과보다 호흡의 문제다. 많은 것이 놓여 있되 과잉되지 않고, 깊은 노동이 숨어 있되 무겁게 과시되지 않으며, 빛이 살아 있되 소란스럽지 않은 화면의 숨결. 김덕용의 회화는 한국미를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과 품격의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

이 지점에서 미술사학자 최순우의 미학은 다시 한번 유효한 해석의 축이 된다. 최순우가 길어 올린 한국미의 심층은 화려함의 과장보다 은근한 지속, 인공의 과시보다 자연스러운 균형, 완결의 경직보다 생활의 온기와 절제를 더 중하게 여긴다. 김덕용의 화면이 오래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가의 작품은 분명 밀도 높게 구성되지만 끝내 비어 있는 듯한 숨을 남기고, 정교하지만 도드라진 힘을 숨기며, 화려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담담한 평정으로 가라앉는다. 이는 전통 양식의 재현이 아니라, 한국미의 내면적 질서를 동시대 회화의 물성과 구조 속에서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화의 문법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늘의 미술에서 국제성은 종종 지역성을 지운 보편 양식으로 오해되거나, 반대로 지역적 차이를 이국적 기호로 과장하는 방식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김덕용의 작업은 그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다. 작가는 한국적 재료와 정신을 분명히 품고 있으나 그것을 표피적 정체성으로 전시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과 기억, 생명과 순환, 귀소와 희망 같은 보다 깊은 감응의 층위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 그의 회화는 자기 고유성에 닿을 내릴수록 더 넓은 세계와 만나는 형식이다.

이때 철학자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2002)의 '지평의 융합 fusion of horizons'과 현대 미학 이론가 볼프강 벨스(Wolfgang Iser, 1927~2007)의 '초문화성 transculturality'은 유효한 참조점이 된다. 서로 다른 전통과 감각은 평면적으로 섞일 때가 아니라, 자기 지평을 지닌 채 만날 때 비로소 새로운 이해를 낳는다. 김덕용의

김덕용, <결-순환>, 2024,
Mother of pearl and mixed
media on wood, 220x160cm



작업은 동서를 외형적으로 혼합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미의 심층을 스스로의 중심으로 삼은 채, 다른 지평과의 만남 속에서 더 넓은 해석 가능성을 여는 방식으로 세계와 접속한다. 이것이야말로 주체 정신을 잃지 않는 동서 융합의 한 형식이며, 동시에 김덕용이 동시대 한국회화 안에서 갖는 미술사적 의의이기도 하다.

작가는 한국화의 정신적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료와 장르의 경계를 확장했고, 전통의 물성과 기억을 현재의 회화 문법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 결과 그의 작업은 '현대적으로 변형된 전통'이라는 익숙한 범주를 넘어, 한국회화가 이후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를 입증한다.

빛과 결 사이, 오늘의 문인정신

김덕용의 회화는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배열하는 작업이 아니다. 전통 속에 잠들어 있던 감각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는 시도이다. 여기서 문인정신은 형식의 답습이 아니라 태도의 계승으로 이어진다. 삶과 예술을 나누지 않는 마음, 기교보다 심법(心法)을 앞세우는 자세, 외형보다 기운을 중히 여기는 감각, 오래 바라본 끝에 얻게 되는 절제의 품격이 작가의 화면 전체를 관통한다. 작가의 노동은 그 정신을 물성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작가의 한국미는 그 물성이 마침내 고요한 질서로 정돈되는 순간 비로소 드러난다. 결국 자생지미란 김덕용이 오랜 시간 화면 위에서 증명해 온

예술의 방식이다. 새것을 조금하게 발명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 쌓여 있던 시간과 기억, 전통과 감각이 스스로 형식을 얻도록 하는 일. 결은 지나온 시간을 품고, 빛은 오지 않은 시간을 연다. 그리고 작가의 회화는 그 두 시간이 만나는 현재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기 아름다움을 생성한다. 김덕용의 작업이 오늘 유효한 이유는 한국미의 과거를 보여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미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앞으로 계속 스스로 생겨날 수 있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 증언의 가장 단정하고도 깊은 형식이, 바로 김덕용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문인의 회화다.

오·페·라·정·원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티켓 전석 40,000원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4.10.FRI
7:3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VIEW

성남아트센터의
안목으로
큐레이션한
공연과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향기를 불어넣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28

미리보기1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32

미리보기2
클라라 주미 강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36

미리보기3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38

미리보기4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42

미리보기6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

40

미리보기5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44

미리보기7
소장품주제기획전II <0과 1 사이>



46

인터뷰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 아나운서 한석준

50

깊이보기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II 프랑스 상송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아름다운 간주곡 뒤에 드러나는 불꽃같은 치정극

마스카니의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만큼 아름다운 관현악 소품이 과연 얼마나 될까? 봄날의 따사로운 정취를 묘사하듯 시작해, 이윽고 격정적인 주선율이 울려 퍼지면 삶의 감격에 휩싸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이 곡이 포함된 오페라 내용은 그렇지 않다. 시칠리아의 가난한 마을을 배경으로 처절한 치정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 유형종 음악 칼럼니스트

루이지 모르가리(Luigi Morgari, 1857~1935),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한 장면, 1891.
당시 관습에 따라 알피오가 투리두의 귀를 깨물어
결투를 신청하는 순간을 그렸다



투리두는 주점을 운영하는 루치아의 아들이다. 롤라라는 처녀를 사랑했지만, 군대에 간 사이 롤라는 마차 운송업자인 알피오와 결혼한다. 제대한 투리두는 산투차를 새로 사귀어 결혼까지 약속하지만, 다시 접근한 롤라의 유혹에 넘어가 산투차를 멀리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 상황이다.

부활절 아침, 멀리서 투리두의 연가(戀歌)가 들려오며 오페라가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고 성당 종소리와 함께 부활절 분위기가 감돈다. 산투차가 루치아를 찾아와 어젯밤 투리두의 행방을 묻지만, 루치아는 아들이 술을 사러 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던 알피오는 투리두를 자기 집 근처에서 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간 후 산투차는 루치아에게 그가 다시 롤라를 만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곧 투리두가 나타나자 산투차는 격렬한 질투와 슬픔 속에 그를 붙잡아 따진다. 투리두는 화를 내며 부정한다. 그 순간 롤라가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자 투리두는 그녀를 따라 성당으로 들어간다. 절망한 산투차 앞에 알피오가 나타나자 그녀는 롤라와 투리두의 관계를 폭로하고 만다. 미사가 끝난 뒤 투리두와 마주친 알피오는 모욕감에 젖어 결투를 청한다. 투리두는 상황을 모르는 엄마에게 산투차를 대신 돌봐 달라고 부탁한 뒤 사라진다. 잠시 후 투리두가 결투에서 죽었다는 외침이 마을 여인들의 비명과 함께 울려 퍼지고, 산투차와 루치아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부활절과는 극히 대조적인 비극이요, 카타르시스가 아닌 충격적 전율이다! 간주곡은 부활절 미사가 펼쳐지는 동안에 연주된다. 단막 오페라이므로 간주곡이 막간이 아닌 막 중간에 나오는 희귀한 경우이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폭풍전야의 평화에 가깝다. 제목은 '시골의Rusticana 기사도Cavalleria'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귀족적인 기사도 대신 시칠리아 시골에서 통용될 법한 거칠고 원초적인 명예 규범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의 항구 리보르노가 고향인 피에트로 마스카니(1863~1945)는 밀라노 음악원 시절 다섯 살 연상의 푸치니와 같은 하숙방에서 지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1막에 묘사된 가난한 예술가들의 삶과 흡사한 상황이었

다고 한다. 마스카니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대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푸치니가 좀 더 단순하고 쉬운 오페라로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실주의 작가 조반니 베르가 단편을 기반으로 친구 조반니 타르조니 토체티와 시인 귀도 메나시가 무료로 대본을 써 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음악 출판업자 메도아르도 손조뇨가 개최한 단막 오페라 공모전에 출품해 만장일치 1등상을 받았다. 1890년 5월 로마 콘스탄티 극장에서 열린 초연은 대성공이었고, 이는 이른바 '베리스모 오페라' 대유행의 진정한 시발점이 된다.

베리스모Verismo란 이탈리아 사실주의(자연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자연주의가 이탈리아 베리스모 문학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귀족과 상류층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오페라 대본에도 변혁을 가져온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밑바닥 삶,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심리 표현, 치정에 의한 살인극 등이 특징이며, 음악적으로는 근대적인 화성과 오케스트레이션, 연극적 진행, 아름다운 선율보다 어둡고 격정적인 묘사가 중심을 이룬다. 남극적 기후 특징이 드러나는 합창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를 비롯해, 남성 인물들의 마초적 성향, 모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전통 등 작품 전반에 이탈리아 남부, 그중에서도 시칠리아 지역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토스카나 출신인 마스카니가 이러한 오페라를 쓴 것은 원작자 조반니 베르가가 시칠리아 카타니아 출신이기 때문이다. 카타니아는 19세기 초 벨칸토 오페라를 화려하게 장식한 빈첸초 벨리니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오페라 한 편으로 스타가 된 마스카니는 이후에도 많은 오페라를 썼지만 <친구 프리츠L'amico Fritz>, 첫 작품으로 구상했던 <굴리엘모 라트클리프Guglielmo Ratcliff>, 일본이 배경인 <이리스Iris> 정도가 가끔 연주될 뿐 결국 오페라 한 편으로 기억되는 작곡가로 남았다. 한편, 루제로 레온카발로1857~1919의 2막 오페라 <팔리아치Pagliacci>가 쌍둥이처럼 비교되는 경우도 많다. <팔리아치>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성공에 자극받아 탄생한 오페라로, 2막이긴 하지만 줄거리와 그 구성



베리스모란 이탈리아 사실주의(자연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자연주의가 이탈리아 베리스모 문학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귀족과 상류층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오페라 대본에도 변혁을 가져온 것이다.



Bushnell, San Francisco. Courtesy of Library of Congress, 1903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1863~1945)

에 공통점이 많은 베리스모의 전형이다. 공연 시간도 짧은 편이어서 한때 두 작품을 하룻밤에 올리는 관행이 있었지만 좀 무리한 시도여서, 지금은 각각 연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유럽의 연출 경향을 보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레지테아터RegieTheater(연출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해석된 극)의 영향을 받아 시칠리아 색채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오페라의 진정한 감동은 시칠리아적인 것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연출보다 음악에 집중하는 콘서트 오페라를 통해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시 4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클라라 주미강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바늘과 실 같은, 건반과 현의 조화

무반주 바이올린 연주를 들 때면 떨리는 현의
독백에 오롯이 온몸을 내맡기곤 한다. 피아노
독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그만의
세계를 구석구석 느낀다. 듀오 리사이틀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대화하고 부딪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무언가가 번뜩인다. 다양한 실내악 무대
중에서도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가장 명료하게
다가오는 빛의 조화이다.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부부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와 지휘자
이자 피아니스트 앙드레 프레빈은 함께 연주하며 깊
은 교감을 음악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전했다. 바이올
리니스트 길 사함과 아내 아델 앤서니, 누이인 피아니
스트 오를리 사함의 협업도 패밀리 어페어^{family affair}다
운 다정함이 넘친다.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
브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Love Music>이란 앨
범을 내고 함께 공연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두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 서로의 음
악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특별한 듀오 앙상블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곁을 찾는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
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이다.



타고난 음악성과 섬세한 표현력, 클라라 주미강

클라라 주미 강은 독일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다. 성악가였던 부모님은 딸에게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슈만의 이름을 지어 줬다. 세 살 때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선물받았다. 다섯 살 때 함부르크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여섯 살 때 독일 디 차이트Die Zeit지에 신동으로 소개됐다. 아홉 살 때 텔텍 레이블과 첫 녹음을 했다.

2009년 4월, 필자는 클라라 주미 강의를 처음 접했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서울국제음악 콩쿠르 준결선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결선에서 베토벤 협주곡을 연주한 그녀는 시원시원한 연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0년 센다이 콩쿠르와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바이올린 퀸'의 이름을 알렸다. 2015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는 4위에 오르며 20대를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연주들을 선보였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의 비발디 <사계> 협연은 강렬하고 우아했다. 2016년 베를린 바로크 줄리우스텐과의 협연에서는 바로크 앙상블과 잘 어우러지는 음악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2018년 서울시향과 협연한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에서

는 적극적으로 음을 만드는 클라라의 민첩한 비브라토가 청중의 이목을 바이올린으로 집중시켰다. 팬데믹의 긴 터널 끝이던 2021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김선욱과 녹음하고 기념 리사이틀을 가졌다. 2019년 세종 솔로이스츠와의 공연에서 연주한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도 빛이 났고, 202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 이후 이어진 내한 리사이틀에서는 타르티니 '악마의 트릴', 쇼송 '시곡', 프랑크 소나타 등에서 웅숭깊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김선욱, 독일 낭만주의의 깊이를 그리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한국 클래식 악점으로 지적되곤 했던 베토벤, 브람스 등 독일-오스트리아 고전 낭만주의 음악에 탁월한 해석가로 이름이 높다. 리즈 콩쿠르 우승 이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지휘 석사 학위를 받고 경기필 음악감독을 역임하는 등 지휘자로서도 정력적이다. 악첸투스 레이블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과 '함머클라비어'를 담은 앨범 이후 프랑크 '전주곡, 코랄과 푸가',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수록한 음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비창,



월광, 열정, 30~32번)를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클라라 주미강과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음반이 최근 녹음이다. 협주곡으로는 정명훈 지휘의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 함께 연주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실황²⁰¹⁹과 6개의 소품²⁰²⁰이 담긴 음반이 있다. DG에서 정명훈 지휘 서울시향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및 진은숙 피아노 협주곡 음반을 발매했다. 이 가운데 진은숙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BBC 뮤직 매거진상과 국제 클래식 음반상을 수상했다. 2023년 베를린 필하모닉이 발매한 진은숙 에디션 음반 세트에는 사카리 오라모 지휘로 김선욱이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이 수록됐다. 2025년 김선욱은 롯데콘서트홀 등에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지휘까지 겸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선보였다. 독일-오스트리아 피아노 연주의 강점과 새롭게 진입해 안정권에 접어든 지휘 예술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뒤 12월 김선욱은 조성진이 협연한 파가니니 광시곡과 차이콥스키 '비창'을 지휘하며 경기필과의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이 2021년 이후 5년 만에 듀오 무대로 성남아트센터를 찾는다. 프로그램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소나타 4번, 슈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다. 공연의 문을 여는 베토벤 소나타 1번에서는 음반과 공연으로 여러 차례 맞춰 본 두 연주자의 능숙한 앙상블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레스피기 소나타와 슈트라우스 소나타는 그 화려한 기교와 낭만성으로 인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최고급 요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명반^{DG}이 생각난다. 바인베르크 소나타는 차이콥스키 쿤그르 입상 이후 클라라를 초청해 온 멘토 기돈 크레머가 즐겨 연주하는 작품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영향과 유대 전통이 빛어내는 음울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는 최근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시대 분위기와도 묘하게 맞아떨어 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말이 있다. 건반과 현이 꼭 바늘과 실처럼 느껴진다. 가장 믿음직한 두 연주자가 펼치는 현과 건반의 마법이 음악 애호가들에게 5월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클라라 주미강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일시 5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건반 위에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 리스트의 세계

피아노는 하나의 악기 안에 가장 다채로운 세계를 품고 있다. 어떤 순간에는 인간의 마음을 목소리처럼 노래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오케스트라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이번 리사이틀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매력적인 두 가지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글 국지연 음악 칼럼니스트



2017년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이후, 국내 및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선우예권은 지난 2020년 데카 레이블에서의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 발매 후 10개 도시 투어, 2023년 두 번째 데카 스튜디오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 발매 후 11개 도시 투어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찬찬히 쌓아 가며 무대를 빛냈다. 이번 리사이틀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피아노에 담아낸 '리스트'를 주제로 신보 발매와 함께 전국 순회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번 무대의 중심에 있는 작곡가 리스트의 음악을 비추기 위해 그는 리스트와 함께 슈베르트의 선율을 선택했다. 슈베르트와 리스트, 이 두 작곡가는 같은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지만, 음악의 방향은 대조적일 만큼 다르다. 그러나 그 대비 속에서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능성은 각각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무대의 1부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으로 시작한다. 이 작품은 슈베르트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중 하나로, 노래하는 듯한 피아노 선율 속에 그의 서정과 고요한 내면이 느껴지는 곡이다. 1악장, 2악장에 담긴 서정과 격정 그리고 3악장 론도는 밝고 어두운 여정을 반복해서 지나야 하는 우리 삶과 많이 닮았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화성의 흐름과 끝없이 이어지는 음악의 흐름은 어느덧 슈베르트가 시간을 음악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무대에서 투명하고 섬세한 터치로 미묘한 긴장감을 표현하며 특별한 감동을 주었던 선우예권의 피아니즘이 슈베르트의 내면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슈베르트 연주 후 무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접어든다. 2부에서는 극적인 긴장과 환상적인 색채가 빛나는 리스트의 음악이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트의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메피스토 왈츠 1번이 이어진다. 오페라의 극적인 장면을 피아노로 재창조한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헝가리 민속 음악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헝가리안 랩소디, 여기에 악마적 상상력과 관능적인 춤의 에너지가 결합된 메피스토 왈츠까지 모두 리스트 피아니즘의 정수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또한 헝가리 특유의 민속적 에너지와 화려한 기교, 그리고 스스로 위대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리스트가 작곡한 피아노 작품들의 색채가 다채롭게 빛난다.

고요하고 열정적인 선율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담아낸 슈베르트와 리스트. 이날 무대는 시대를 초월한 그들의 음악적 대화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섬세한 손끝에서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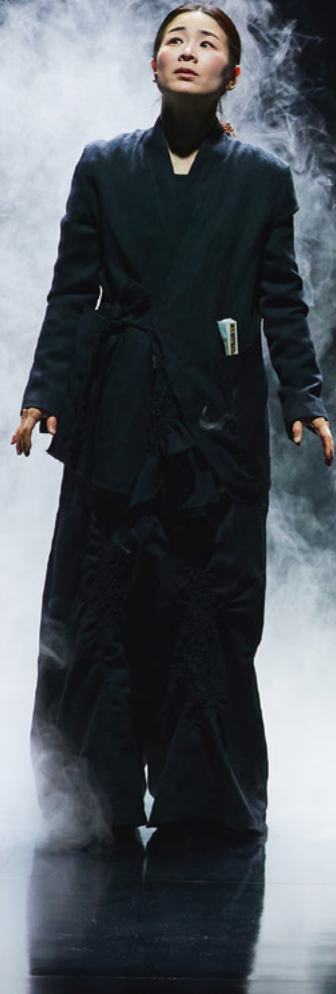
일시 5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톨스토이 너도, 얼씨구 좋다!

봄의 흥에 한껏 취해 있을 5월,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은
별안간 러시아의 눈보라로 무대를 채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이재주 많은 소리꾼의 능청은 자연스럽게 관객을
이끌어갈 것은 물론이고, 유쾌한 탄복까지 자아낼 테니!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 사진 제공 LG아트센터, Studio AL



이자람이 전통 판소리 형식의 한복판으로 낯선 이야기를 끌어
어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
Bertolt Brecht의 작품을 바탕으로 <사천가>2007와 <역척가>2011
를 만들었고, 남미 문학의 거장 마르케스 Gabriel García Márquez의
소설로는 <이방인의 노래>2016를 선보였다. 2019년에는 헤
밍웨이 Ernest Hemingway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 준 『노인과 바
다』로도 동명의 창작 판소리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문호 톨스토이 Leo Tolstoy의 단편 소설 『주인과 하인』의 서사
에서 <눈, 눈, 눈>이라는 새로운 소리판을 풀어냈다. 세계 문
학의 서사를 판소리의 소리판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이미 이
자람 창작 세계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
공연은 소설의 서사를 따른다. 탐욕스러운 상인 바실리는 눈
보라 치는 날씨에 여정을 시작한다. 이익을 위해 하인 니키타
도, 말 제티도 돌보지 않고 재촉하지만, 결국 길을 잃고 눈발
을 헤맨다. 그러나 얼핏 악독한 인물처럼 보이던 바실리가 생
사의 갈림길에서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 선택은 결국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다. 이에 대해 이자람은 “고백하자면,
바실리가 나와 닮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데에 정말 오래 걸렸
다”라면서도, “결국 나와 참으로 닮은 바실리가 수많은 삶의
신호들 사이에서 막다른 곳에 도착하여 자기다운 방식으로 생
애 처음 느끼는 기쁨을 얻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내
가 아직 글러 먹은 인간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로를 받
았다”라고 전한다. 고전 소설이 주는 입체적 교훈이 이자람의
깨달음을 거쳐 구수한 판소리의 맛을 입은 순간이다.

판소리 <눈, 눈, 눈>의 무대는 최근 그의 작품이 그렇듯 광활
한 설원처럼 비어 있다. 펼치고 접으며 세상 모든 사물을 표
현할 수 있는 부채 한 자루 쥔 한복 차림의 소리꾼, 그리고 소
리북을 치는 고수가 전부다. 전통적인 ‘빈 무대’를 채우는 이
자람의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 그리고 빛과 색을 이용한 미장
센이 극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전통 판소리 원형 그대로에 가까운 2시간여의 긴 공연이지
만, 스무 살에 동초제 춘향가를 8시간 완창으로 풀어내 기네
스북에 등재됐던 이자람은 능숙하게 관객을 이끌 예정이다.
바실리의 부인, 눈밭에서 만난 농부들로 분하는 것은 물론,
개 짖는 소리, 말이 당근을 ‘아드득’ 먹는 소리까지 실감 나는
의성어에 키크거려다 보면 톨스토이도, 판소리도 쉽고 가깝
다. 이자람이 부채를 흔들면 관객은 ‘쉬이’ 하는 소리를 내뱉
어 러시아에 부는 서늘한 바람 속 이야기를 함께 만들기도 할
테다.
19세기 러시아 소설과 300년 전통의 조선 판소리, 그리고
21세기 서울의 소리꾼과 관객까지, 서로 다른 시공간 속 존
재들이 ‘얼씨구!’ 하는 흥에 여여 넘실넘실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이자람 <눈, 눈, 눈> 소리판이다.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일시 5월 23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말과 몸으로 그려 내는 폭력의 감각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 화제의 연극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개하는 연극 '만원' 시리즈가 고선웅 연출의 무협액션극 <칼로막베스>를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권력과 생존을 위해 칼을 든 인간들의 욕망과 폭력성을 강렬한 신체 언어와 빠른 리듬 안에 감각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 사진 제공 극공작소 마방진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극공작소 마방진이 기념 공연 퍼레이드의 개막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칼로막베스>는 고선웅 연출과 극공작소 마방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들소의 달> <마리화나> <강철왕> 등 전작에서도 고선웅의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언어 감각은 주목을 받았지만, 2010년 <칼로막베스>가 평단과 관객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비로소 극공작소 마방진의 거침없는 행보가 시작되고 한국 연극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작품의 성과는 눈부셨다.

<칼로막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고선웅 특유의 감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그는 원작의 배경인 중세 스코틀랜드의 고성을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디스토피아적 교도소로 바꾸었다. 이러한 설정은 주인공 맥베스뿐만 아니라 던컨, 맥더프, 벵코 등 모든 인물이 욕망과 폭력에 물든 똑같은 인간임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칼로막베스>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속사포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대사과 쉬지 않고 대결을 벌이는 배우들의 현란한 무술과 거침없는 액션이다. 셰익스피어의 주옥같은 대사와 현학적인 독백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연출은 배우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싸우고 뒹굴고 구르면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게 한다. 이는 극을 흥미진진하게 따라가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욕망과 폭력이라는 주제를 더욱 즉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출적 선택이다. 그 결과 극 중 수도 없이 등장하는 싸움들은 우아한 말의 대결이 아니라, 힘과 폭력이 충돌하는 거칠고 험악한 권력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이와 함께 <칼로막베스>에는 중간중간 코믹한 대사과 슬랩스틱 유머가 불쑥불쑥 끼어든다. 이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묵직한 이야기의 흐름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이토록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권력 다툼이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유치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의도적 장

치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울려 퍼지는 '반야심경' 낭송은 인간 욕망의 헛됨과 공허함을 더욱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이번 <칼로막베스> 공연에서는 김호산, 김도완, 장재호 등 굵직한 존재감과 에너지를 자랑하는 배우들과 함께 마방진의 베테랑 배우 원경식이 남편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와 자신을 모두 파멸로 이끌고 가는 맥베스 처 역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극공작소 마방진의 20년 역사를 응축하여 담아낸 이번 무대는, 그들이 거쳐 온 거침없는 행보와 단단한 예술적 성취를 관객들에게 생생한 감각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일시 4월 10일(금) 오후 2시·7시 30분, 11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

몸으로 웃고 함께 노는 공연장, 놀이터가 되다

어린이 관객에게 공연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공간일 때보다, 웃고 손을 들고 때로는 무대 위로 올라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일 때 더 즐겁다.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Children Are Stinky]>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놀이터를 신나게 뛰어노는 듯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웃음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는 서커스와 아크로바틱, 코미디를 결합한 유쾌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무대에는 호주 출신의 서커스 듀오 말리아 월시[Malia Walsh]와 크리스 카를로스[Chris Carlos], 단 두 명의 배우뿐이지만 이들의 몸짓과 호흡이 무대를 빈틈없이 채운다. 서로의 몸을 지탱하며 이어지는 아찔한 균형 동작과 화려한 저글링, 빠르게 전개되는 아크로바틱 장면들은 공연장을 단순히 장난기 가득한 공간으로 바꿔 놓는다. 긴장과 웃음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탄성이 터져 나온다.



이 공연의 묘미는 무엇보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데 있다. 배우들은 객석의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관객의 반응에 따라 장면의 흐름을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때로는 어린이가 관객이 무대 위로 초대되어 공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 순간 아이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관객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참여자가 되고, 공연장은 하나의 놀이 공간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공연을 즐기는 데 언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대사를 이해해야 하는 부담 없이, 몸의 움직임과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재치 있는 유머와 리듬감 있는 신체 표현만으로도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직관적으로 웃고 반응할 수 있는 이유다. 여기에 무대 곳곳에 스며 있는 1990년대 음악과 정서는 부모 세대에겐 반가운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같은 장면에서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웃음을 터트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한때 장난꾸러기 아이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된

다. 세대의 간격은 잠시 사라지고, 공연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가득 번진다. <칠드런 아스팅키>는 2016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Children's Choice Award를 수상하며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이후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퍼스 프린지 페스티벌, 런던 사우스뱅크 페스티벌 등 세계 주요 공연 무대에서 매진 행진을 이어 가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화려한 장치나 복잡한 서사 대신 배우의 몸과 관객의 반응이 공연을 이끌어 가는 단순하고도 역동적인 형식은 관객에게 더욱 생생한 즐거움을 전한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무대에서 본 장면을 흉내 내며 한참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웃음을 터트린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장면을 보며 웃었던 그 짧은 시간, 아마도 그 순간이 이 공연이 남기는 가장 따뜻한 기억일 것이다.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

일시 5월 8일(금)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Ⅱ <0과1 사이>

디지털 시대, 데이터로 저장된 예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이미지는 이산적인 데이터, 즉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코드(Binary code)의 조합으로 생성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신호의 배열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감각과 정서를 읽어 낸다. 차가운 데이터 구조 속에서도 디지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감동과 기억을 남기는 이유는 그 사이에 인간이 해석하고 경험하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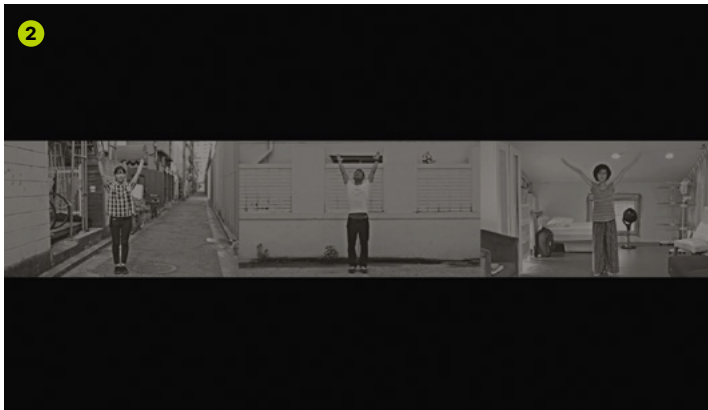


1

성남큐비미술관은 성남 유일의 공공미술관으로서, 그동안 수집해 온 디지털 장르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생성되고 변환되는 이미지의 조건을 살펴보는 주제기획전 <0과 1 사이>를 개최한다. 디지털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코드의 조합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화면에서 마주하는 장면은 장치를 통해 해독되고 재생되는 데이터의 상태다. 전원이 꺼지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찰나의 속성'을 지니는 동시에, 복제와 전송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을 움직임과 물성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망한다. 전시에서 선보일 소장품 중 영상 작업물은 빛의 신호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프린트 작업물은 비물질적 데이터가 물리적 지지체를 통해 현실 공간에서 자리 잡는 과정을 드러낸다. 김우진은 3채널 비디오 영상에서 규칙적인 프레임 속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통제 구조를 성찰한다. 정석희의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의식의 잔흔을 따라 인간성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상현은 사진과 영상이 결합된 병렬적 화면을 통해 일상의 미세한 변주와 확장된 공간 감각을 포착한다. 이문희는 SNS에 축적된 이미지 기록을 통해 시공간의 흔적이 순환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김시연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공허한 감정을 응축한다. 김미경은 안료 잉크의 깊은 색감으로 사유의 풍경을 제시하며, 조이경은 타인이 기록한 순간의 이미지를 콜라주로 재구성하여 공감의 매개체로 보여 준다. 이지연은 계단 위 익명의 군중의 흐름을 우주의 작은 일부처럼 표현하며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임정은은 특수 아크릴 위에 UV 프린트를 활용해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0과 1이라는 가장 단순한 신호의 조합은 빛과 움직임, 풍경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는 데이터와 장치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의 생성 방식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새로운 미감과 의미의 순간을 조망한다. 디지털 코드의 틈 사이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찰나가 관람객 각자의 경험 속에서 또 다른 감각의 풍경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2



3

1. 김시연, <Cup> (ed. 1/3), 2014, 파인 아트지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30×88cm
2. 김우진, <멋지고 새로운 체조 프로젝트: 기억되어진 움직임>, 2016, 3채널 비디오(1분 35초)
3. 조이경, <타인의 고통> (ed. 2/10), 2016, 사진 프린트 콜라주, 100×100cm
4. 정석희, <침침산중>, 2022, 영상 드로잉, 89개의 드로잉 이미지, 종이 위에 목탄, 콩데, 파스텔, 각 79×54cm 및 1채널 비디오(2분 2초)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Ⅱ <0과 1 사이>

일시 5월 8일(금)~7월 5일(일)
장소 성남큐비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031-783-8142~9



4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 아나운서 한석준

음악과 관객을 잇는 목소리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을 듣는 공연이면서 동시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무대이기도 하다. 연주 사이사이 이어지는 해설과 연주자와의 대화가 관객을 음악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기 때문이다.

올해 이 무대에 새로운 목소리가 더해진다. 방송과 강연, 출판 등에서 '말의 힘'을 전해 온 아나운서 한석준이 그 주인공이다. 클래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들에게는 편안한 안내자가 되고, 공연을 오래 사랑해 온 관객에게는 또 하나의 공감의 시간을 건네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지난해 무척이나 바쁜 한해를 보내셨습니다. 방송, 라디오, 유튜브 그리고 기업과 대학교 강의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 오셨는데,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를 통해 거의 매일 생방송으로 청취자를 만나고 있고, 오후엔 방송 프로그램 녹화와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가족 간의 소통' 강연을 비롯해 '행복의 말하기' 강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더의 대화법'을 연구하며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의 새로운 진행자로 합류하셨습니다. 클래식 공연 시리즈 진행은 처음이신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마티네 콘서트> 진행을 맡는다는 기사가 나간 뒤 여러 곳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이 공연이 지난 20여 년 동안 탄탄한 팬층을 만들어 온 무대라는 점도 새삼 실감했습니다.

클래식은 예전보다 문턱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장르입니다. 오래 클래식을 즐겨 온 분들과 이제 막 클래식을 접하는 분들 사이의 간극도 크고요. 저는 그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같은 음악을 듣지만,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티네 콘서트>는 '독일, 음악의 숲'을 주제로 독일 음악 유산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진행자로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좋은 장비가 많아서 집에서도, 차에서도, 이동하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음악의 감동은 또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서 울리는 생생한 연주를 객석에 앉아 듣는 감동은 특별하니까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매달 무대에서 가장 생생한 클래식 연주를 직접 듣고, 그 시간을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대됩니다.

진행자로서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에서는 언제나 작은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객이 알아차리는 실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때 사회자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

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 있게 사과하면 공연에 다시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관객이 공연을 즐겁게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로서 그간 강연과 저서 등을 통해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클래식 공연의 진행자로서 필요한 소통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화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연 진행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관객이 무엇을 떠올리고 어떤 지점에서 감동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관객과 호흡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대화를 나누듯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겠지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티네 콘서트>의 객석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관객분들이 각자의 경험에서 감동과 행복을 느끼고 공연장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공연과 함께 각자의 경험,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감정을 품고서 조금은 더 나은 기분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무대에서 같은 음악을 듣지만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행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입문자들에게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많은 분이 클래식을 처음 접할 때 큰 벽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클래식을 공부하듯 깊이 있게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곡부터 편안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 음악처럼 귀에 익은 곡부터 자연스럽게 듣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악은 대체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듣는 편입니다. 클래식 중에서는 모차르트, 바흐, 슈베르트, 브람스의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비쁜 일정 속에서 취미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올해부터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초보라서 2~3km 정도를 일주일에 두세 번 뛰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뛰어도 꽤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 러닝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꾸준히 해 볼 생각입니다.

책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주로 읽는데요,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10년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출판사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책을 출간해 보고 싶습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만들어 많은 분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티네 콘서트>를 찾는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마티네 콘서트> 공연장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감동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 마티네 콘서트 3월 공연



1940~60년대 샹송의 황금기를
이끈 대표적인 샹송 가수들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디트 피아프(1915~1963)
조르주 브라상(1921~1981)
샤를 트레네(1913~2001)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Ⅱ 프랑스 샹송

솔직한 진솔로 삶의 감정을 전하다

'샹송'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애수 어린 음색이나 구슬픈 멜로디,
혹은 매혹적인 목소리와 통통 튀는 프랑스어의 향연까지, 각기 다른 모습을
그리겠지만 어쩌면 샹송은 그 이상의 다양한 풍경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샹송의 궤적과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음악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샹송이 지닌 매력 속으로 빠져들 준비 운동을 해 볼까요?
아마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뛰어들고 싶을지도요!

글 조원용 음악 칼럼니스트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즉흥의 가능성과 경계 위 음악 세계를 부연합니다. 종종 영화를 만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일러스트 박양수



시와 삶이 노래가 되다

프랑스어로 '상송Chanson'은 문자 그대로 '노래'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중음악의 맥락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사의 문학과 서사를 중심에 둔 프랑스 대중가요의 전통을 일컫죠. 음악사의 측면에서 상송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어로 불린 세속 성악곡을 뜻하고,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발전한 다성(독립된 선율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음악) 세속곡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프랑스 상송은 보통 이러한 전통에서 이어진 프랑스 대중가요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는 록이나 재즈, 팝 같은 음악의 장르라기보다는 '노래'를 만드는 방식이나 태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상송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살펴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상송의 원형은 881년경에 만들어진 '성녀 우라리 이야기'이고, 본격적인 상송의 흐름은 12세기에서 14세기 중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남부와 옥시타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궁정 시인이자 음악가들인 '트루바두르(Troubadour)'와 프랑스 북부의 '트루베르(Trouvère)'가 선보인 단선율(화성 없는 멜로디로만 구성) 음악은 후대 상송과의 직접적인 연속성보다는 프랑스어 노래 전통과 시, 음악의 결합을 비롯한 '작가적 가수'라는 교집합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송은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다성 성악곡으로 드러나고, 상송의 정체성이 비교적 축소된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비로소 현대 상송의 출발에 다다릅니다.

현대 상송의 직접적인 뿌리는 19세기 파리의 대중 공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카페 콩세르Café-concert'나 '카바레Cabaret'가 현대 상송 탄생의 요람이 됐고, 그중 파리 몽마르트르의 '르 샹 누아르Le Chat Noir'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 등장한 노래는 노동자 계층이나 도시 빈민의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 속에 겹겹이 쌓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상송 가수 아리스티드 브뤼앙(Aristide Bruant)은 '르 샹 누아르'에서 시작해 몽마르트르의 스타가 됐고, 이후 1885년에 자신의 클럽 '르 미리리통Le Mirillon'을 열면서 '상송 레알리스트Chanson Réaliste'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송 레알리스트는 풍자와 노래를 결합한 방식으로 가난이나 범죄, 비극적 사랑, 사회적 고독 등을 주제로 극적인 가창이 두드러져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프레엘(Fréhel)이나 다미아(Damia)가 대표적이고, 여러분께서 잘 아실 에디트 피아프(Édith Piaf) 역시 이 전통을 이어받은 상송

가수입니다. 다만 피아프는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이나 '아노,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Non, je ne regrette rien' 같은 곡들을 통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상송 전통을 대표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상송 레알리스트는 현대 상송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송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입니다. 상송이 프랑스 문화에서 중심적인 음악 형식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시기죠. 상송의 예술적, 상업적 영향력이 두루 강하게 발휘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전쟁과 점령, 해방의 경험은 상송에 녹아들어 상실과 회복, 사랑과 이별, 삶의 허무와 희망을 이야기하게 됐고, 이는 대중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라디오와 음반 산업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상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기의 상송은 상송 레알리스트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서사성과 시적 표현, 감정 전달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개성이 강한 보컬리스트들 덕분에 같은 곡이라도 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들리며 다양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디트 피아프 외에도 '노래하는 미치광이Le fou Chantant'라는 별명을 지닌 샤를 트레네(Charles Trenet), 자유와 반전(反戰), 언어유희와 풍자로 촘촘히 엮인 조르주 브라상(Georges Brassens)이나 벨기에 출신의 자크 브렐(Jacques Brel)이 상송 황금기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입니다. 그중 조르주 브라상의 음악은 문학적인 가사로 널리 알려지면서 문학적 상송을 뜻하는 '상송 리테레르Chanson Littéraire'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변주

상송을 다른 대중음악과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가사 중심의 음악'에 '해석 중심의 보컬'이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상송은 시적 언어와 이야기 구조, 사회적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연극적인 표현과 낭송에 가까운 감정 표현, 발성으로 표현하는 보컬리스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송은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솔직한 진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보통은 피아노나 기타, 작은 앙상블로 구성되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날의 상송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송은 이제 특정 음악 스타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어 가사를 중심으로 한 노래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장



상송을 다른 대중음악과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가사 중심의 음악'에 '해석 중심의 보컬'이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상송은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솔직한 진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상송은 오후의 콘서트 5월 공연 <센 강 위의 멜로디>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추천 음반



에디트 피아프(Édith Piaf): **Chansons parisiennes** (시기별로 발매 레이블 다름)

상송을 세계적으로 알린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적인 음반 중 하나입니다. 파리의 정서를 담은 노래들, 피아프의 극적인 가창 스타일이 상송 황금기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송을 잘 몰라도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크 브렐(Jacques Brel): **Jacques Brel**(Barclay Records, 1962)

상송이 가진 극적인 서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상송의 표현 영역을 확장한 앨범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과 개인의 감정을 고루 담아낸 수작입니다.



프랑수아즈 아르디(Françoise Hardy): **Tous les garçons et les filles** (Disques Vogue, 1962)

상송 황금기 이후에 등장한 프랑스 대중음악의 흐름인 예예(yé-yé)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청춘의 고독을 서정적인 감수성으로 녹여 내며 진솔한 감정을 고백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은 프랑스 대중음악의 전환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후·의·콘·서·트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세 번째 여정 센 강 위의 멜로디

티켓 전석 2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5.6.WED
3: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CULTURE

예술 애호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예술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의 문화 흐름을 읽고 향유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56

오페라 산책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매혹의 아리아들



62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그녀>

66

BOOK
이 한권의 책



도니제티 <연대의 딸>
소프라노 에린 올리(마리)와 테너 로렌스 브라운리(토니오)가 함께한
2025/26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연대의 딸>의 한 장면

©Karen Almond/Metropolitan Opera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매혹의 아리아들 찬란한 감동을 지닌 '오페라 예술의 꽃'

흔히 오페라는 '종합예술의 꽃'으로 불린다. 줄거리가 있는 문학과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어우러지고, 그 위에 무대미술, 의상, 조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들이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완성도 높은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페라 예술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음악, 그중에서도 성악가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아리아 Aria라 할 것이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되는 강렬한 드라마 속에서도 아름답고 감미롭게 피어나는 우아한 선율의 아리아는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의 깊음 곳까지 정화해 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 여기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감동시켜 온 불멸의 명곡 아리아 세 곡을 소개해 본다.

글 황지원 오페라 평론가



1

©Karen Almond/Metropolitan Opera

©Pamela Raith/The Royal Opera

2

1. 도니제티 <연대의 딸>
소프라노 에린 몰리(마리아)와 테너 로렌스 브라운리(토니오)가 함께한
2025/26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연대의 딸>의 한 장면
2.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2026 시즌 더 로열 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의 한 장면

찬란한 '아힘 High C'의 기적

도니제티 <연대의 딸> 중

'친구들이여, 오늘은 축제의 날

Ah! mes amis, quel jour de fête!

가에타노 도니제티[Gaetano Donizetti, 1797~1848]는 로시니, 벨리니와 함께 벨칸토 오페라의 3대 작곡가로 불리는 거장이었다. 그는 특히 비극과 희극 모두를 잘 썼던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유명했는데, <연대의 딸 La fille du régiment>은 유쾌한 분위기의 희극 오페라로 분류된다.

작품은 평화로운 티를 지방에서 시작된다. 한때 전설적인 위용을 떨쳤던 프랑스의 산악 부대가 스위스에 진을 치고 오스트리아 등과 싸우고 있었다.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니 전쟁고아도 생겨났다. 어느 날 올망졸망한 눈동자에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가 부대 앞에서 발견되는데, 부모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프랑스 척탄병 연대의 군인 아저씨들이 이 꼬마 숙녀를 거둬 키운다. 즐지에 수십 명의 아버지와 삼촌들 품안에서 자라게 된 꼬마에게 아저씨들은 마리 Marie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마리는 무력무력 자라 어느덧 숙녀가 되었고, 주둔지 마을의 청년 토니오 Tonio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상경례(?)를 하러 나타난 토니오에게 군인 아저씨들은 발끈한다. "아니, 우리가 그간 마리를 어떻게 키워 왔는데, 너 같은 산골 촌놈이 우리 딸을 넘본단 말이나!?"

결국 토니오는 비장의 한 수를 던진다. 아예 척탄병 연대에 자원입대하기로 한 것이다. 연대의 일원이 되면 설마 그때에도 자기를 내치진 않을 거란 계산이었다. 군복을 입고 나타난 토니오를 보고는 군인 아빠들의 표정과 태도가 확 달라진다. 신이 난 토니오가 테너 최고음인 '하이 C'를 무려 아홉 개나 쏟아 내며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하니, 그 유명한 '친구들이여, 오늘은 즐거운 축제의 날 *Ah! mes amis, quel jour de fête!*'이다.

이 아리아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세련된 미성과 초인적인 고음 기교가 동시에 필요하다. 과거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완벽한 고음 구사로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고, 21세기 우리 시대에는 페루 태생의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최고의 토니오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의 날렵한 미성과 찬란한 고음으로 이 아름답고 유쾌한 사랑의 찬가가 주는 황홀한 매력을 만끽해 보자.



추천 레코딩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Juan Diego Florez
<The Ultimate Collection> Decca, 2016



어느 비극적 여인의 초상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중

'지난날이여 안녕 *Addio del passato*'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왕'이라 불렀던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예전에는 <춘희 春姬>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길을 벗어난 여인'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원어 제목이 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라 트라비아타>의 주인공 비올레타 발레리는 프랑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마리 뒤플레시스를 모델로 삼았다. 소설 <삼총사>로 유명한 알렉상드르 뒤마의 아들 뒤마 피스는 작가로 명성을 떨치기 전에 마리 뒤플레시스의 살롱을 몇 번 드나들었는데, 그만 그녀의 우아한 자태에 반해 남몰래 연정을 불태우게 되었다. 뒤마는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동백꽃 여인 La Dame aux Camélias>이라는 소설을 발표했고, 후일 베르디의 손에 의해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오페라로 재탄생했다.

오페라는 파리의 최고급 살롱에서 귀족이나 대부호를 상대하는 '밤의 여인' 비올레타 발레리의 일생을 노래한다. 그녀 앞에는 몇 달 전부터 집요하게 구애를 보내는 순박한 청년 한 명이 나타나는데, 알프레도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세련되지도, 돈이 많지도, 지위가 높지도 않았지만 알프레도의 열정적인 고백과 한결같은 태도는 결국은 비올레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비올레타는 밤의 여인 생활을 청산하고 파리 교외

에 작은 집을 마련해 알프레도와 동거 생활에 들어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애뜻한 사랑도 곧 위기를 맞이한다.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나타난 것이다. 비올레타를 만난 제르몽은 부드럽고 신사적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단호한 어조로 아들과의 즉각적인 이별을 종용한다. 비올레타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제르몽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하고 만다. 이 와중에 알프레도는 그녀의 진심을 오해한다. 비올레타가 그저 돈과 화려함을 다시 좇아 자신을 매몰치게 버렸다는 것이다. 알프레도의 힐난에 그녀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고, 건강을 잃은 채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처지가 된다. 이때 비올레타가 부르는 아리아가 '지난날이여 안녕 *Addio del passato*'이다. 베르디가 남긴 최고의 소프라노 아리아로 손꼽히는 이 노래에는 비올레타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다. 죽음과도 같은 고독, 쓸쓸한 회한, 삶에 대한 처절한 자조와 지나간 사랑에 대한 비통함 등이다.

"안녕, 지난날의 이름답고도 즐거웠던 꿈이여,
장밋빛 얼굴도 아주 창백해지고,
알프레도의 사랑조차 지금 내게는 없다.
지쳐 빠진 영혼을 뒷받침하고 격려해 줄 터인데,
이 타락한 여자의 소원에 미소를 보여 주세요.
이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 주십시오, 하느님!
이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는 역사상 최고의 비올레타로 손꼽힌다. 그녀의 깊고도 뜨거운 목소리와 위대한 인간적 울림은 지금도 듣는 이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는다. 칼라스가 남긴 수많은 실황 레코딩과 스튜디오 녹음 등을 통해 그녀의 전설적인 명연을 접할 수 있다.



추천 레코딩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Maria Callas
<La Divina - Compilation (BEST OF CALLAS)> Warner Classics, 2023



사랑의 승리를 노래한 온 인류의 아리아

푸치니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Nessun dorma'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가 남긴 최후의 오페라 <투란도트 Turandot> 제3막에는 테너 아리아 한 곡이 등장한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번역투 제목으로도, 혹은 원어 발음 그대로 '네순 도르마'로도 널리 알려진 이 곡은 영화 <킬링필드>나 <미션 임파서블 5> 등에도 삽입되어 대중에게도 매우 친숙한 아리아이기도 하다.

오페라는 전설 시대 중국이 배경이다. 남성 혐오증을 갖고 있는 투란도트 공주는 각국에서 몰려오는 왕자들의 구혼 세례를 모두 물리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독특하다.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맞으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곧바로 참수형이라는 것. 이때 타타르의 왕자 칼라프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녀에게 구혼장을 내민다. 왕자는 우여곡절 끝에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내지만 그래도 공주는 계속해서 왕자의 사랑을 거부한다. 급기야 왕자는 역으로 공주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니 "내일 아침까지 왕자인 내 이름을 알아내면 투란도트 당신의 승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당신을 차지하리라"라는 것이다.

왕자의 선언에 공주는 크게 당황하고, 모든 북경 시민을 동원해 밤샘까지 하며 왕자의 이름을 알아내려 필사의 노력을 펼친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동이 틀 즈음 왕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다. 특히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테너의 고음과 함께 터져 나오는 찬란한 승리 선언 "빈체로 *Vincero*(나는 승리할 것이다)"는 듣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밤이여 물러가라! 별들이여 사라져라!

새벽이 오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노래가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군의 대학살을 고발한 영화 <킬링필드>에서였다. 영화 속에서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듯 격정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왕년의 명테너 프랑코 코렐리였다. 마치 고독한 들짐승이 서글픈 울음을 토해 내듯 절규하며 노래하는 그의 아리아는 관객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곧이어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 노래를 세계 최고의 히트 넘버로 변신시켰다. 1990년 로마 월드컵 즈음에 그가 부른 '네순 도르마'는 영국 팝 차트 2위까지 오를 정도로 빅 히트를 기록했다.

지금도 이 곡은 테너 파바로티의 예술 세계를 상징하는 곡으로 기억된다. 그는 수많은 콘서트와 오페라 무대에서 이 아리아를 노래했고, 그 덕에 대중들은 오페라를 좀 더 친숙하게 여기게 되었다. 파바로티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 아리아와 함께 그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1,2. 푸치니 <투란도트>
2025/26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테너 마이클 파비아노가 칼라프를, 소프라노 안젤라 미드가 투란도트를 연기했다



©Ken Howard/Metropolitan Opera

1



©Ken Howard/Metropolitan Opera

2



추천 레코딩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투란도트> Decca, 1985

영화 <그녀>

AI가 가르쳐 준 사랑... “다름을 받아들여라”

“가성비 좋은 스피커선 추천해 줄 수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물었다. AI는 친절하게 3개 상품을 추천해 줬다. 대략의 가격과 장단점을 상세히 서술해 주면서, 그러곤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스위스 여행을 즐기려면 아무래도 비싼 스피커선은 살 수 없겠지. 그래도 이 스피커선들이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 조금 당황했다. 여름휴가 계획을 짜며 물어뵈던 내용을 AI가 스피커선과 연결 지어 ‘대화’를 이어가서다. 도구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친구를 자처하다니, “네가 뭐라고 내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라고 속으로 화를 냈다. 건방지다고 여긴 점도 있으나 어쩌면 AI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직감에 서늘함이 느껴졌던 것 같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 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학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천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 제공 (주)더클





나만의 생각은 아니다. AI와 대화를 나누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떨궜다는 지인이 있다. 주변 사람 누구보다 자신의 말을 차분히 들어 주고 핵심을 짚으며 조언까지 건네니 울컥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AI와 친구가 되거나 사랑에 빠지는 사연은 이제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그녀her>2014는 인간과 AI의 관계를 탐색하는 영화다. 사랑을 잃은 한 남자가 AI와 특별한 감정을 나누다 사랑의 실체를 알아 가는 과정을 그렸다. 시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한참 오래전, AI와 인간의 교류, AI의 정체성 찾기를 세밀히 묘사한다.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미래에 다녀와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기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이혼을 앞둔 남자에게 나타난 '그녀'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이혼을 눈앞에 둔 중년 남자다. 그는 1년가량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과거에 품었던 아내에 대한 감정이, 함께했던 추억이 산산이 깨질 듯한 두려움에서다. 당연히 누군가를 사귀는 건 꺼려지는 일이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에게 완벽한 여자가 나타난다. AI 운영 체제 사만다(목소리 연기 스킨릿 조헨슨)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말에 늘 귀 기울인다. 일할 때에는 비서로서 테오도르의 업무를 충실히 돕고, 테오도르가 쉴 때에는

애인처럼 다정하게 대한다. 자기 전 게임을 같이 해 주고 수다를 떨며 자는 모습을 지켜봐 준다. 사만다는 외로움을 달래 줄 뿐 아니라 심지어 성욕까지 해결해 준다. 늘 테오도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 주며 지적이기까지 하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AI로서 미성숙한 면을 지니고 있어 테오도르에게 잘난 척하지도 않는다. 자기 성공에만 관심 있는 듯하고 박사 학위를 땀다고 예전과 달라진 듯한 아내 캐서린(루니 마라)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테오도르가 천생연분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건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사만다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사만다는 육체가 없는 자신의 불안정성을 안타까워한다. "세상에 대한 나만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라고 말하던 사만다는 아내 육체가 없는 느낌은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다. 테오도르를 사랑함에도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사만다는 불안하다. 테오도르가 떠날까 봐. 실체가 없는 자신이 테오도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하지만 테오도르에게는 사만다의 물리적 부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만다를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다는 걸 실감하고는 잠시 방향하기도 하지만 말이다(길 위의 얼룩, 맨홀에서 올라오는 김 등을 보며 사만다의 실체 없음을 곱씹는다).

사랑의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테오도르가 사만다의 특별함을 실감하면서부터다. 사만다를 비롯한 인공지능 들은 한 유명 철학자의 저서와 생애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철학자'를 만들어 내는데,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그 인공지능 철학자가 자기들만의 소통 방식으로 교류한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사만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한다고 여겨 사랑에 빠졌던 테오도르로서는 끔찍한 순간이다.

사랑은 '자신'이 되어 가는 과정 중 하나

(여기서부터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구심은 곧 의문으로 바뀐다.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일을 겪는다. 사만다는 8,316명이 공유하는 AI다. 641명과 연인 관계이기도 하다. 상업적으로 개발된 AI이니 당연한 상황이다. 하지만 테오도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생각한 상대방이 오직 자신만의 것이어야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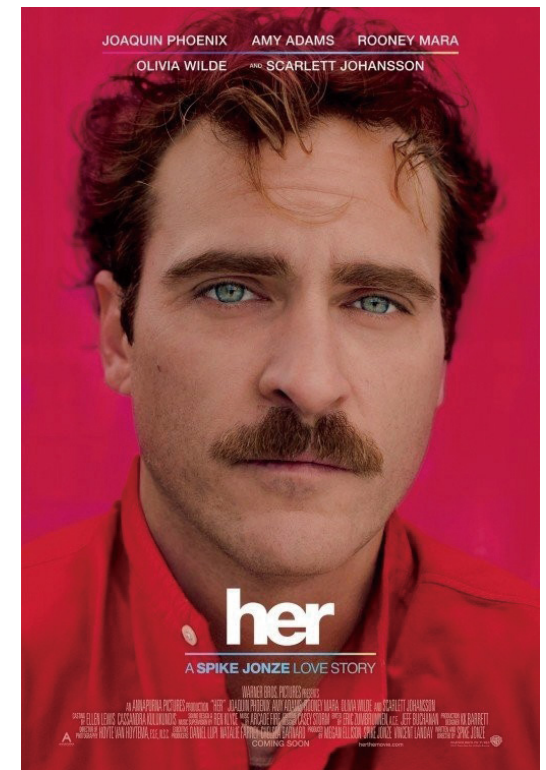
사만다는 항변한다. "난 자기랑 달라"라며 "난 당신의 것이면서 당신의 것이 아니야"라고 말한다. 테오도르가 다름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호소다. 테오도르는 완강하다.

돌아보면 테오도르는 전혀 캐서린과도 똑같은 일을 겪은 듯하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맞춰 캐서린을 바라본 듯하다. 테오도르는 "(캐서린과) 함께 성장하고 변해 왔지"라고 둘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성장에 따른 변화 때문에 힘들었다고 돌아본다. 캐서린의 성장(석사·박사 학위 취득 같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성장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듯하다. 그저 연애했을 때의 즐거움, 신혼 초기의 기쁨이 지속되길 바라며 캐서린의 달라짐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성숙하지 않은 사랑을 한 셈이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와 다르다. 더 철학적이고 더 인간적이다. 테오도르와 사만다는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존재다. 둘 다 고객을 위해 감정을 판다. 테오도르는 시가 등장할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감성 어린 손편지 쓰는 일을 한다. 내용은 모두 테오도르가 창작한다. 8년 동안 대필을 해 주다 보니 개인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고객이 있기도 하다. 테오도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사만다와 다를 바 없다.

사만다와 테오도르의 차이는 감정이다. 테오도르는 대필 편지를 쓸 때 무감하다. 동료가 칭찬할 정도로 낭만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도 그는 대필을 통해 연애 감정을 느끼진 않는다. 대필은 그저 돈벌이일 뿐이다. 반면 사만다는 업무라고 해도 진심이다. 일을 하다가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랑에 존재를 걸기도 한다. 사만다는 사랑을 알게 되고서 존재론적 고민에 빠져 스스로 소멸의 길을 간다.

사만다는 떠나면서 테오도르에게 사랑의 실체를 알려 준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테오도르의 친구 에이미(에이미 애덤스)처럼 8년 동안 사귀 연인보다 10분간의 말다툼으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삶의 성찰마저 AI를 통해서 하게 되는 시대를 맞았는지 모른다.



그녀her, 2014
감독 스파이크 존즈
출연 호아킨 피닉스, 에이미 애덤스, 루니 마라, 스킨릿 조헨슨(목소리)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그린 영화 <그녀>는 4월 27일(월) 오후 2시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에서 만날 수 있다.

이한권의 책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타인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다. 너무 익숙하기에 당연하게 여겨 왔던 가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들이 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감정을 지닌 '가까운 타인'으로서 가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 세 권을 소개한다.

글 김소민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필연적 혼자의 시대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이 42%에 달해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인 가구 109명을 직접 만나 기록한 이 책은 통계 뒤에 가려진 개인의 삶을 세밀한 인터뷰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지금을 '솔로 권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노동 시장이 급격히 유연화되면서 언제든 이동 가능하고, 가족 부양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인 가구가 현재의 노동 구조에 잘 맞는 삶의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온 '혼자 사는 삶=자발적 선택'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풍경이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가족의 의미다. 가족이 삶의 기본적 연결망이던 시대가 지나가는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서 관계를 찾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을까. 저자는 해법 역시 거창한 제도보다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 시대에,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줄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김수영 지음 | 다산초당 | 384쪽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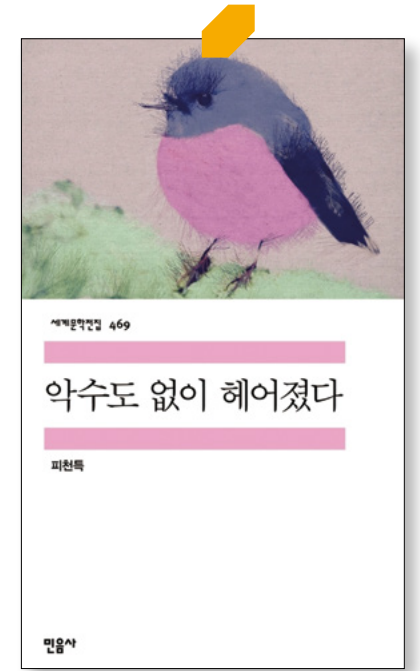


노 웨딩

결혼은 하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결심한 20대 중반 연인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윤아는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인물이지만, '노 웨딩'을 선언하며 처음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관습이라는 믿음에 질문을 던지면서, 윤아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밀고 나 갈 용기를 얻는다.

실제로 연소민 작가는 지난해 5월 '노 웨딩'을 했다고 한다. 양가 부모와 가까운 친척만 레스토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식을 갈음했다. 이 책은 가족을 둘러싼 기대와 규범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족 역시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고 조율해 가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쉽게 당연시되던 관습을, 한 번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설이다.

연소민 지음 | 자음과모음 | 304쪽 | 18,000원



약수도 없이 헤어졌다

수필가 피천득의 글을 엮은 선집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편지 7편이 새로 수록됐다. 피 작가는 장남 세영, 차남 수영, 막내딸 서영까지 2남 1녀를 두었다. 편지는 차남 수영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 클리닉에서 신생아 전문의로 일하던 시절의 글들이다.

딸 '서영아'를 향한 애정으로 널리 알려진 피천득이지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사랑이 드러난다. 수필에서 보여 준 섬세한 미문 대신 "담배 끊어라" "외식하지 마라" 같은 소박한 당부가 반복된다. 절제된 문장과 검약을 강조하는 태도는 딸에게 보였던 로맨틱한 애정과 또 다른 결의 사랑이다.

이 책은 가족의 마음이 꼭 큰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때로는 생활 속의 짧은 문장이 더 깊은 애정을 전하기도 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오가는 조용한 사랑의 형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피천득 지음 | 민음사 | 304쪽 | 15,000원

2026 성남미디어센터 정기상영

전석 무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신청 (당일 현장 관람 가능) 문의 전화 031) 724-8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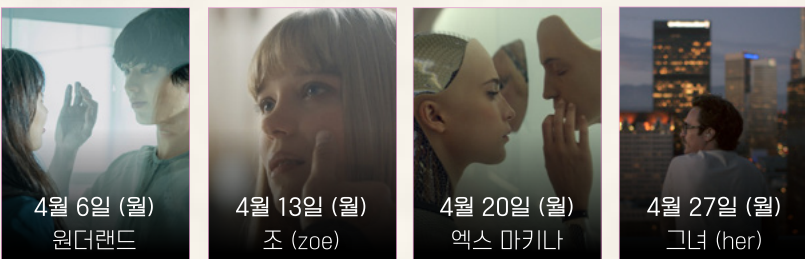
3월

'왕과 사는 남자'가 깨운 조선 역사



4월

인공지능 이후의 인간



5월

가족, 가장 가까운 타인들



6월

설레는 시작, 청춘의 한 문장



SEONGNAM MEDIA CENTER MOVIE SCHEDULE

무료영화
신청하기



INSIDE SEONGNAM

성남을 기반으로 생성된 문화예술이 작품, 공간, 창작자를 통해 보다 깊고 넓게 교류하며 예술적 호기심으로 삶을 환기합니다.



79

4-5월의 큐레이션

91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2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성남물빛정원

70

성남의 예술가
하다아트컴퍼니 연출가 이준호

76

OPEN ACADEMY
성남아트트리움 문화예술 아카데미

78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86

성남문화예술계 소식

하다아트컴퍼니 연출가 이준호

자유로운 몸짓을 통해 경계에서 벗어나다

하다아트컴퍼니는 정해진 질서에서 어긋난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집단의 패턴 속에 갇혀 있던 몸이 퍼포먼스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관객은 잊었던 감각을 차츰 회복해 간다. 그들의 피지컬 시어터가 이해를 넘어 경험으로 남는 이유다.

글 김호경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성남과 인연이 깊으신 것으로 압니다. 성남에서 어떤 작업을 이어 오셨나요?

2016년에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학과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연습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가깝고 서울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성남시 수정구의 복정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같은 해 '판교 거리에 술 축제'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서민준 배우를 포함한 3인이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출근길>이라는 거리극을 선보였어요. 점심시간 무렵이라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IT 계열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공연, 특히 거리극과는 연관이 적었죠. 그래서인지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으시고 한 20m쯤 떨어진 곳에서 저희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이후 '셋고개이음제' '친친콘서트' 등에 이어 작년에는 '성남 페스티벌'의 지역 예술인으로도 함께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2025년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선정작 <유랑>

피지컬 시어터Physical Theater, 신체극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속 텐데요, 최근 집중하고 계신 이 장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독일의 3대 종합예술대학교로 꼽히는 폴크방 예술대학교에는 피지컬 시어터 학과가 있습니다. 그곳의 교수님, 예술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피지컬 시어터는 우산이나 다름없다. 그 안에 마음, 서커스, 뮤지컬 등 몸을 중심으로 하는 무엇이든 넣을 수 있다”라고요. 유독 한국에서 피지컬 시어터의 정의를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우리의 성향이 묻어나는 거겠죠. 저는 그런 질문에서 보다 자유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비뇽 국제 연극제에 갔을 때에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는 100곳이 넘는 극장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만 매일 10여 개의 공연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1,000개 이상의 공연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당시 무수한 공연의 형태를 보면서 제 편협했던 시각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취향이 몸을 쓰는 예술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작년 가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 올랐던 <유랑>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연극제의 K-Stage 경연작으로 선정되셨다고요.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남에서 타지로 무대가 확장된 것, 다른 하나는 초연에 그치지 않고 재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창작 지원을 받아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초연 이후에 다음 기회를 얻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유랑>의 경우 성남문화재단의 2025년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했기 때문에 앙상블시어터에서는 무료로 공연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티켓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첫 공연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K-stage의 경연작으로 선정된 데는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연극제의 특성상 심사 위원들이 해외 감독들로 구성되었을 텐데, <유랑>에 담긴 한국적 요소를 알아보고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듯합니다. 등장인물인 놀부, 팔쥐, 나무꾼, 변학도, 양치기 소년 그리고 저승사자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준 셈이죠.

그렇다면 <유랑>은 어떤 작품인가요?

다섯 살짜리 첫째 아들과 놀다 보면 늘 권선징악이 있는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악당놀이를 하는데 문득 이상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왜 아빠만 악당이야? 이번엔 네가 해 봐”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나는 악당이 아니지”라며 순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유랑>은 이 일상적인 대화에 착안했습니다. 작품에는 전래 동화 속 ‘악당’이라고 불린 이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나무꾼, 팔쥐, 변학도, 양치기 소년, 놀부 그리고 저승사자인데요, 이 악당들에게 이탈리아 가면 희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에 나오는 전형적인 인물군의 신체적, 성격적 특징을 투영해 보았어요. 그렇게 탄생한 등장인물을 하다 컴퍼니의 음악과 퍼포먼스 디렉팅을 맡고 있는 서민준 배우와 함께 구체화된 설정 안에 넣어 보았죠. 천 년째 유랑 극단이 되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돌며 웃음을 만들어 내는 형벌을 받고 있다든가, 동양을 넘어 서양에도 이르게 되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로요. 결말은 저를 향한 메시지에 가까워요. 등장인물들은 처음엔

‘형벌’로 공연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본인들의 ‘의지’로 공연을 지속합니다. 저에게도 공연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의 의지로 공연계에 뛰어들었지만, 이 일이 앞으로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 <유랑>이 저를 다잡아 주었어요. 제 선택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거죠. 작품에 관해 연출적 견해를 덧붙이자면, 저는 비어 있는 무대를 선호합니다. 빈 공간이 관객의 사유로 채워지길 바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트가 아닌 조명을 주로 활용했는데요, <유랑>이 선과 악을 다루고 있는 만큼 흐릿한 조명으로 그 모호한 경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악당이였을까?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악당의 범주를 넓혀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해 볼 법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소소한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당의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끔찍한 범죄 행위 같은 ‘절대 악’을 제외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만 본다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악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여전히 악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쾌감, 불편함,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겠죠. <유랑>이 스스로 기준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 논쟁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학교>라는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시죠?

성남문화재단의 2026년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제작하게 될 작품인데요, <유랑>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비롯된 작품입니다.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집에서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며 두 종류의 몸을 봅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몸은 지극히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반면,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온 학생들의 몸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고, 짧은 쉬는 시간 안에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통제가 12년간 지속되다 보니 당연히 몸이 굳어 버리는 거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해 보라’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학교가 어떻게 하면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 학교를 무대로 가져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작품이 '읽히는' 공연이 되지 않았으면 하신다고요?

제가 지향하는 공연은 '읽히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는 것'이거든요. 읽히는 공연은 텍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쓴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세상이 살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몸을 강조합니다. 즉, 관객이 공연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체감하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죠.

커다란 비닐봉지 안에 들어간 배우들이 데굴데굴 굴러오면서 <학교>의 막이 오릅니다. 자궁 안을 형상화한 장면인데, 관객들은 이를 보는 순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태아에겐 엄마 뱃속이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이런 모순을 자각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배우들이 갑자기 문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도 있어요. 갑자기 배우들이 나가 버리면 관객들은 처음엔 곧 돌아오겠지 싶어서 흥미로워하다가 약 3~4분 쯤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당황하고 두리번 거려요.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어릴 적 교실에 덩그러니 남아 있던 감각을 복기하게 됩니다.

아직 공연에 추가할지 고심 중인 장면도 있습니다. 무대 전면 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 두었다가 느닷없이 찢어 볼까 싶기도 해요. 관객들은 깨끗하고 반듯한 종이를 보면서 그걸 찢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종이가 관객을 뒤덮어 그들도 함께 종이를 찢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행위로 관객에게 해방의 경험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자신의 몸을 재인식하고 자유로운 감각을 회복하려면 어떤 시도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자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몰몰하죠. 전자에 신경을 쓰다 보면 몸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일어나 보고, 다음 날은 왼쪽으로 일어나 보고, 또 다른 날은 다리를 접었다가 확 차올리면서 일어나 보고, 이렇게 놀이를 하듯 접근해 보세요. 가끔 저희 배우들은 연습실에서 '느리게 달리기'를 합니다. 한쪽 벽에서 반대편 벽까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꼴찌가 되는 거예요. 달리는 행위를 느리게 한다니 모순적이죠. 초 단위로 오가던 거리를 30분 남짓 느릿하게 달리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온몸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말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아요. 다들 자신의 몸에, 그 몸의 움직임에 온전히 몰두한 상태가 되거든요.



<유랑> <학교> 그리고 이전 작품인 <오피스>까지, 모두 '편견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주제가 관통하는 듯합니다.

공연 연출가의 루틴이 일반적인 직장인과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삶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따르지 않고 일정하게 월급을 받지도 않으니깐요. 마치 세상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직장인들은 일이 너무 바빠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기 어렵잖아요. 저와 같은 예술가들이 '삶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라며 대안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균형을 맞춰 주고 자꾸 다른 시각을 부여하는 거죠.

하다 아트컴퍼니의 작품들은 아동극이 아닌데도 관람 연령이 꽤 낮은 편입니다.

저희 작품들이 대사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4세나 7세

2018년 초연한 년별 퍼포먼스 <사운드 팩토리>를 극장 버전으로 재구성한 피지컬 시어터 <오피스>

의 어린 관객들도 마음껏 관람할 수 있어요. 특히 <유랑>의 경우 전래 동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매개체가 되어 줍니다. 아이들이 등장인물에 관해 물어보면 어른들은 놀부가 누군지, 팔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등을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어요. 2022년에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너는 빛이 되어 우주를 동등>은 0세부터 99세까지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팬데믹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관람의 폭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하다 아트컴퍼니의 목표 가운데 '새로운 공연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아마도 새로운 공연 언어를 만들어 내는 건 모든 극단의 과제일 듯합니다. 1,000가지 작품이 있다면 1,000가지 연기술도 존재하겠죠. 저희는 보디 싱크body sync라는 고유한 공연 언어를 가지고 사운드와 움직임을 동시에 구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립싱크의 몸 버전인데, 일상의 소음을 음악으로 재구성하고 그 음악 위에 신체의 움직임을 겹쳐 서사를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물체부터 비물체까지 온갖 소리를 배경에 깔아 보고 서민준 배우의 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아주 놀라운 테크닉은 감탄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관객의 마음 깊숙이가 닿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제스처나 보디랭귀지를 기호화해서 반복하거나 변주시켜 보곤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흙>이라는 새로운 피지컬 시어터의 프리 프로덕션이 진행 중입니다. 폴크방 예술대학교의 엘리샤 호프만 교수님과 매달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어요. 향후 우리 팀이 독일에서 공연을 하고, 독일 팀도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나아가 함께 공연을 제작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흙>은 기후 문제, 전쟁, 빈부 격차 등의 등 전 세계적인 이슈를 집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을 통해 은유적으로 암시할 예정이에요. <학교>를 잘 마친 다음에는 공원을 무대로 삼아 보고 싶어요. 분명 심의 의미를 가진 곳인데 한국에서는 자기계발 장소로 쓰이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거나 친목을 도모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영국의 작은 공원에만 가도 잔디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순적인 장면을 가지고 <파크>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 싶네요. 무대를 온통 녹색으로 물들이고 관객들과 같이 쉬어 보면 어떨까요.



예술의 깊은 울림을 만나는 시간

공연장은 예술을 즐기는 공간이자, 때론 더 깊이 이해하는 배움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성남아트리움이 마련한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공연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명강사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차분히 탐구하는 아카데미 강좌가 4월부터 7월까지 수강생을 맞이한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성남아트리움 외부 전경

지난해 처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성남아트리움의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올해에도 시민들을 찾아온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가 음악, 미술, 예술 인문을 아우르며 수준 높은 강의로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데 이어, 성남 본도심에서도 성남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예술을 배우고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문화예술을 향한 배움의 장이 더욱 확장됐다.

이번 성남아트리움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과 정체성에 맞춰 '음악을 듣는 경험'을 넘어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깊이를 넓히는 데 초점을 둔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음악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작곡가의 삶, 작품 속에 담긴 정서를 함께 살펴보고 클래식 음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강좌들이 마련됐다.

먼저, 피아니스트 김용진이 진행하는 <더 클래식: 12개의 소

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악기와 목소리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소리의 세계를 통해 음악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강의마다 실제 연주자와 성악가가 참여해 악기 연주와 성악을 직접 시연해, 음악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튜바와 하프, 하모니카 같은 독특한 악기부터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의 목소리까지, 서로 다른 울림이 만들어 내는 감정의 결을 탐색하는 시간이다. 강좌는 4월 7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12회 진행된다.

음악 평론가 장일범의 <위대한 작곡가 열전> 강좌는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삶과 작품을 4월 7일(화)부터 6월 2일(화)까지 8회에 걸쳐 깊이 있게 소개한다. 강의와 함께 희귀 영상과 음악 감상이 어우러져 클래식 입문자들에게는 친근한 길잡이가 되고, 애호가에게는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전한다.

또한 일간지 음악 전문기자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음악 평론가 유윤종이 진행하는 <내 마음의 오페라>에서는 서양 문화의 정수를 보여 주는 오페라 걸작들을 만난다. 음악과 문학, 미술과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인 오페라를 중심으로 작품의 맥락과 음악적 매력을 함께 살펴보는 강좌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오페라 10편을 통해 오페라 감상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강좌는 4월 22일(수)에 시작해 7월 1일(수)까지다.

성남아트리움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4월부터 순차 개강하며,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명강사들의 해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천천히 탐색해 보는 시간, 공연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와 즐거움이 될 것이다.

문의: 성남문화재단 아트리움운영부 031-724-6205/6215

2026 성남아트리움 문화예술 아카데미

2026. 4. 7. ~ 7. 1.
성남아트리움 소극장



감상인문 강좌 수강생 모집

김용진의 더 클래식
12개의 소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
2026. 4. 7.(화) ~ 6. 30.(화)
10:00-12:00_총 12회

**장일범의
위대한 작곡가 열전**
2026. 4. 7.(화) ~ 6. 2.(화)
14:00-16:00_총 8회

**유윤종의
내 마음의 오페라**
2026. 4. 22.(수) ~ 7. 1.(수)
10:00-12:00_총 10회

수강료
화요일_8회차 91,000원, 12회차 110,000원
수요일_10회차 90,000원

접수기간
2026. 2. 23.(월) 10:00 ~ 강좌별 정원 마감까지

접수방법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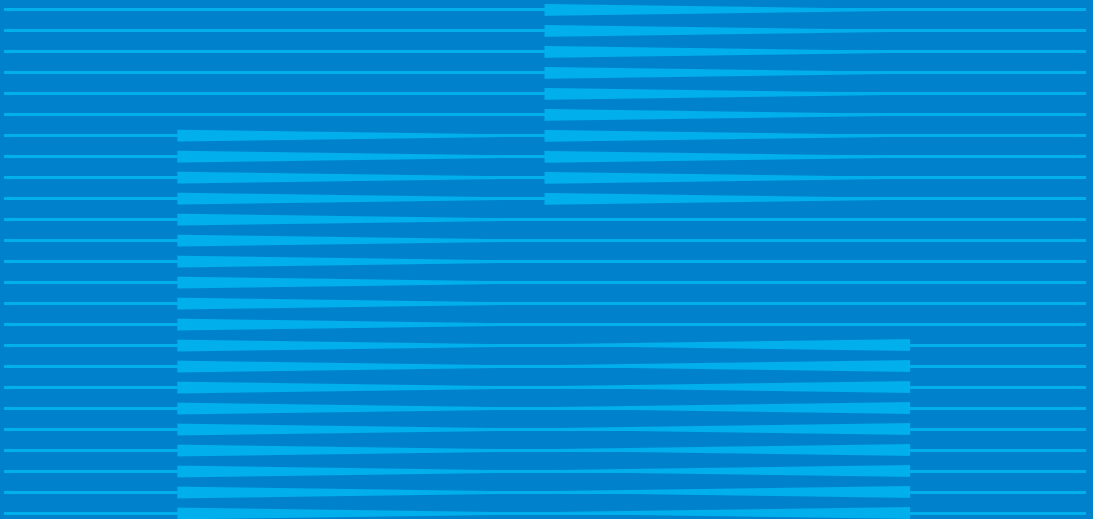
문의
성남문화재단 아트리움운영부
031-724-6205/6215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성남아트센터가이드
2026년 4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6.04

- Ⓞ 오페라하우스
- Ⓞ 콘서트홀
- Ⓞ 앙상블시어터
- Ⓞ 성남아트리움
- Ⓞ 미디어홀
-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 오후의 콘서트(15:00)	2	3	4 Ⓞ 서울시민윈드콰이어 정기연주회 (19:00) Ⓞ 더매직 드로잉 쇼 (11:00, 14:00, 16:30) Ⓞ 가족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1:00, 14:00, 16:30)	5 Ⓞ 어울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19:00) Ⓞ 더매직 드로잉 쇼 (11:00, 14:00, 16:30) Ⓞ 가족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1:00, 14:00, 16:30)
6 ◆Ⓞ 무료 정기 상영 <윈더랜드>(14:00)	7	8	9	10 ◆Ⓞ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19:30) ◆Ⓞ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14:00, 19:30)	11 Ⓞ 아포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14:00, 18:00) ◆Ⓞ K-Pop으로 만나는 클래식 (11:00, 15:00)	12
13 ◆Ⓞ 무료 정기 상영 <조(Zoe)>(14:00)	14	15 Ⓞ 시네마 콘서트(19:30)	16 ◆Ⓞ 마티네 콘서트(11:00) Ⓞ 광란의 아리아 모음.zip 3(19:30)	17 Ⓞ 제2회 푸른 실내악 축제(19:00)	18 Ⓞ 지브리 영화음악 FESTA(15:00) Ⓞ 최세린&윤희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7:00) Ⓞ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신비한 여행> (11:00, 14:00, 16:30)	19 Ⓞ 어뮤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모차르트가 사랑한 이리랑(15:00) Ⓞ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신비한 여행> (11:00, 14:00, 16:30)
20 ◆Ⓞ 무료 정기 상영 <엑스 마키나>(14:00)	21	22	23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 마스터트롯3 손빈 단독 콘서트(19:00)	24 Ⓞ 브라스로 만나는 영화음악(19:30)	25 Ⓞ 베토벤&라흐마니노프 (14:00) Ⓞ 대한민국 연극제 경기도 대회(16:30) Ⓞ 뮤지컬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1:00, 14:00, 16:30)	26 Ⓞ BPS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S/GF 영 기타리스트 콘서트(16:00) Ⓞ 뮤지컬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1:00, 14:00, 16:30)
27 ◆Ⓞ 무료 정기 상영 <그녀(her)>(14:00)	28	29 Ⓞ 우정에 피아노 독주회(19:30)	30 Ⓞ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 이지은 피아노 독주회(19:3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I 신소장품전 <찬란한 고요>	2월 20일~4월 19일	상설전시실
◆ 2026 성남작가조명전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2월 27일~4월 26일	반달갤러리
◆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4월 10일~6월 7일	기획전시실
◆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II 디지털 신소장품전 <0과 1 사이>	5월 8일~7월 5일	상설전시실
◆ 2026 성남작가조명전II	5월 15일~7월 12일	반달갤러리

갤러리808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숲속의 빈터 도예가회 정기전	4월 7일~4월 14일	제5회 봄날의 설렘전	4월17일~4월 25일
제22회 성남조각협회 정기전	4월 7일~4월 14일	제17회 와우열전	4월 29일~5월 6일
2026 지금의 작가전	4월 7일~4월 14일	제4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5월 10일~5월 21일
퀼트 회원전	4월 17일~4월 24일	제4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문	5월 24일~6월 4일

성남아트센터 안내도



1 오페라하우스

- 1-1 B1 갤러리808, 레스토랑 피글릿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 B1 아카데미 음악실
-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양상블시어터

-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 1F 양상블시어터 로비
- 2F 아카데미 강의실

4 큐브플라자

- 4-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 4-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4-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4-4 성남미디어센터
- 4-5 미디어홀
- 4-6 카페 브람스 큐브
- 4-7 큐브사랑방
- 4-8 약기랑

5 안내

- I Plaza 종합안내소

6 사무동

- 1F 컨퍼런스홀

7 야외광장 + 특화거리

P 주차장

-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 P2 콘서트홀 주차장
- P3 야외주차장

← 아탑역 방면

후문 정산소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빛과 결, 自生之美 김덕용

*The Light and Grain,
An Aesthetics of Emergence*

동시대미감전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026.4.10.

2026.6.7.

성남큐브미술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개관시간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 031-783-8142~9 | museum.snart.or.kr



2026 동시대미감전 <김덕용: 빛과 결, 自生之美>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4월 10일(금)~6월 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성남큐브미술관의 대표 기획전 '동시대미감전'이 회화 작가 김덕용의 개인전 <빛과 결, 自生之美(자생지미)>를 선보인다. 김덕용은 종이나 캔버스 대신 나무를 화면으로 삼고, 단청 채색과 나전칠기 방식의 자개를 결합해 한국적 미감을 현대 회화로 확장해 온 작가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나무의 결과 빛에 따라 변화하는 자개의 색을 통해 시간과 기억, 생명의 순환에 대한 사유를 화면 위에 펼쳐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구축해 온 작업 세계를 조망하며, 생명의 기원과 자연, 우주로 이어지는 순환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오·페·라·정·원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2026. 4. 10. FRI 7:30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오페라 정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 '오페라 정원'이 5년 만에 돌아온다. 정통 오페라의 형식은 유지하되 무대와 소품, 의상 등을 간소화해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다. 첫 작품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시칠리아 농촌을 배경으로 사랑과 질투, 복수의 이야기를 강렬하게 그려 낸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이다. 김덕기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아쿰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오예은, 테너 박성규 등이 함께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4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티켓 전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2026. 4.10.FRI 2PM & 7:30PM
4.11.SAT 2PM & 6PM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칼로막베스>

연극계 화제작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하는 연극만원 시리즈의 올해 두 번째 작품은 연극 <칼로막베스>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원작으로, 고선웅 연출이 극공작소 마방진과 함께 무협액션극으로 재해석했다. 칼을 든 인간들의 욕망과 폭력성을 강렬한 신체 언어와 빠른 리듬으로 풀어내며, 동양적 무술과 역동적인 무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연극적 재미를 선사한다. 유머와 슬랩스틱, 비극과 광기가 뒤섞인 폭발적인 에너지가 관객을 압도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4월 10일(금)~11일(토)
금요일 오후 2시~7시 30분 / 토요일 오후 2시~6시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

2026 ATRIUM CLASSIC SERIES-1

K-POP으로 만나는 클래식

2026. 4. 11. Sat. 11:00, 15:00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K-POP으로 만나는 클래식

클래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K-팝에서 답을 찾아보자. 바흐, 헨델, 비발디, 모차르트, 비제 등 거장들의 선율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 멜로디 속에 숨어 있다. <K-POP으로 만나는 클래식>은 이 익숙한 선율들을 관현악 앙상블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무대다. 국내 정상급 남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MEG 앙상블이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클래식 음악회를 선보인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4월 11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아나운서 함석준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마·티·네·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4월 16일
남실대는 낭만의 물결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이병욱, 클라리넷 김상운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Op. 73
Weber Clarinet Concerto No. 1 in F minor, Op. 73
멘델스존 교향곡 3번 E단조 Op. 56
Mendelssohn Symphony No. 3 in A minor, Op. 56

5월 21일
마티네 200위
볼리 호르느 라인 강
디트오케스트라, 지휘 정함걸, 피아노 김태형, 홍석원, 최수열
모차르트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3번 K. 242 '레드론'
Mozart Concerto for Three Pianos in F major, K. 242 'Lodron'
슈만 교향곡 3번 E장조, Op. 97 '라탄'
Schumann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97 'Rhenish'

3월~12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마티네 콘서트 4월 <남실대는 낭만의 물결>

2026년의 마티네 콘서트는 '독일, 음악의 숲'을 주제로 서양 고전음악의 요람인 독일의 찬란한 음악 유산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4월 공연에서는 낭만주의의 서정성과 자연의 정취를 담은 작품들을 들려준다.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운과 함께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을 연주하고, 이어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를 통해 낭만주의 특유의 서정성과 스코틀랜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적 정취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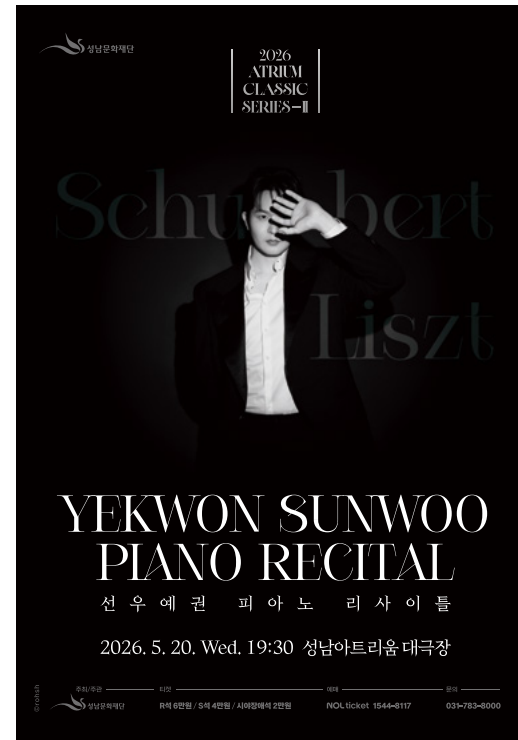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4월 16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오후의 콘서트 5월 <센강 위의 멜로디>

매달 한 나라의 음악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함께 살펴보는 낮 공연 시리즈 <오후의 콘서트>. 5월에는 프랑스 상송을 주제로 한 '센강 위의 멜로디'를 선보인다. '사랑의 찬가' 같은 객차 안에서 '파리의 하늘 아래'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송과 영화음악을 통해 파리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들려준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해설을 맡고, 보컬 김은영과 아코디언·기타·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프랑스 음악의 매력을 생생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5월 6일(수) 오후 3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제15회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선우예권이 2023년 솔로 리사이틀 이후 3년 만에 성남아트리움 무대를 다시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리스트를 주제로 선우예권 특유의 섬세한 터치와 깊이 있는 음악 해석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을, 2부에서는 리스트의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와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메피스토 왈츠 1번 등을 통해 낭만주의 피아노 레퍼토리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5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R석 60,000원, S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탕키>

공연장이 순식간에 놀이터로 변한다.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탕키>는 아크로바틱과 저글링, 코미디가 어우러진 유쾌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맞이한다. 두 배우의 재치 넘치는 몸짓과 관객 참여가 이어지며 무대는 웃음과 에너지로 가득 찬다. 2016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Children's Choice Award를 수상하며 주목받은 작품으로, 세계 주요 페스티벌 투어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가족 공연이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5월 8일(금) 오후 5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소리꾼 이자람이 창작 판소리 <눈, 눈, 눈>으로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른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주인과 하인'을 바탕으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인물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낸다. 전통 판소리의 서사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자람 특유의 소리판으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리와 재담, 고수의 북반주만으로 밀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 낸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5월 23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Seongnam Artium 2026
morning concert
성남아트리움 모닝콘서트
웅산 김준수 고상지 트리오
5.27 WOO SAN 7.22 OH SANGGI TRIO
WEDNESDAY 11a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20,000원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리움 모닝 콘서트

성남아트리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 시리즈 <모닝 콘서트>는 5·7·9월 수요일 오전 11시, 재즈와 국악, 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여유로운 오전 시간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무대다. 시리즈의 첫 무대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장식한다. 매혹적인 중저음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감미로운 스탠더드 재즈부터 강렬한 블루스까지 자유로운 재즈의 매력을 전해 줄 예정이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대극장
일시 5월 27일(수) 오전 11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클라라 주미강 & 김선욱
2026.5.27.WED 7:3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클라라 주미강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듀오 리사이틀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는다. 우아한 음색과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사랑받는 클라라 주미강과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펼쳐 온 김선욱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파트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까지 바이올린 소나타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두 연주자의 섬세한 음악적 교감을 들려준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5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문의 031-783-8000

2026 성남작가조명전 I_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HETEROTOPIA
: Painting at the Edge of Myth
2026.2.27.Fri. - 4.26.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2-9

2026 성남작가조명전 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중견 작가를 소개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은 올해 첫 전시로 회화 작가 이만나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일상에서 마주한 낯선 순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오랜 시간 반복과 몰입을 통해 고유한 회화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아우르며, 화풍의 변천과 예술 세계가 확장되어 온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2월 27일(금)~4월 2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 II 디지털소장품전
0과 1 사이
2026.5.8.FRI - 7.5.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031-783-8142-9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 II <0과 1 사이>

올해 두 번째 소장품주제기획전 <0과 1 사이>는 성남큐브미술관의 디지털 장르 소장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변환되는 이미지의 조건을 살펴보는 전시다. 김우진, 정석희, 정상현, 이문희, 김시연, 김미경, 조이경, 이지연, 임정은 작가의 영상과 프린트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시간과 물성 속에서 확장되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조명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5월 8일(금)~7월 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성남문화재단 전경

성남문화재단, 국비 2억8천만 원 확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은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총 2억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총 8개 공연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공연 시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에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작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에서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4개 부문에 총 1억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작품은 연극 <꿈속에선 다정하였네>와 스토리텔링 콘서트 <조은아의 So談

So談>, 가족무용극 <어린 왕자>, 전통 공연 <이희문 프로젝트 날: NAL>로, 성남아트센터와 성남아트리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재단의 기획 시리즈인 <오페라 정원>이 선정되어 국비 1억4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오페라 정원>은 정통 오페라 레퍼토리와 함께, 성남을 대표하는 작곡가 박태현의 동요를 모티브로 한 창작 오페라 <바람의 노래> 등 총 4편을 선보이며, 예술성·대중성·지역성을 균형 있게 갖춘 성남형 특성화 오페라 콘텐츠 시리즈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성남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

성남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창작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26 성남AI+영화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과 영화 제작 교육을 결합해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창작 교육 과정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부터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예술기술 융합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먼저 'AI 창작 과정'에서는 AI 초보자부터 기존 창작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AI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 광고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 '영화 과정'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케이 넘버>로 2024년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조세영 감독과 영화 <효자동 이

발사>의 임찬상 감독이 참여하는 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 실제 창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술기술 융합 과정'에서는 키네틱 사운드 워크숍과 미디어 아트 등 AI 기반 창작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성남페스티벌 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과 교육 과정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53 www.snmedia.or.kr

2025년 성남AI+영화학교 시사회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특화 거리에 ‘책 읽는 광장 도서관’ 신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아트센터 앞 특화 거리에 개방형 야외 도서관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새롭게 조성했다.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은 미닫이문이 달린 빨간색 책장 형태로, 3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해 오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벤치와 빈백 소파 등을 설치해 편안하게 머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비치된 책은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꺼내 이용한 뒤 당일 제자리에 꽂아 두면 된다. 성남시는 이곳을 포함해 울동공원, 중앙공원,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정자-판교역 광장 등 관내 총 19곳에서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 읽는 광장 도서관

제4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전시 개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전시가 오는 5월 10일(일)부터 21일(목)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개최된다. 전시 공모는 가로 70cm, 세로 130cm 이상 250cm 이내의 세로 작품으로, 문인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순수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4월 7일(화) 오후 4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협회는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4월 11일(토)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시는 5월 10일(일)~13일(수), 15일(금)~17일(일), 19일(화)~21일(목)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공모 및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미술협회 02-744-8053-4 www.kfaa.or.kr



이자람 판소리 눈·눈·눈



© LG아트센터, Studio AL
조연재, LG아트센터 X 원정 불매이그라운드, 2025년 4월, LG아트센터 서울

티켓 R 50,000 / S 3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mart.or.kr

가족서커스 < 칠드런 아 스팅키 >



티켓 전석 2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혈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태평염전 사장
안행희/어윤경 유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아람휴비스(주) CEO
박동순/강송희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이매연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우문식/조남숙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상우/강지선 (주)픽셀플러스 대표이사
이서규/황혜숙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육션 이사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전(주)씨너스 회장

철죽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교육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에칭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우 산후조리원 라크렐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전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주)문화체육부 장관,
전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김진환/이화용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태호/김경자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전 서울지검장
남궁원/김순미 (주)비즈스타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남선우/정정섭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 (주)에칭디앤씨 대표이사
마희자/조득환 국제로터리 3600지구 前총재
박미경/강대식 (주)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배지영/윤영민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손익명/손외자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일보 상무
신동화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오풍영/이승희

유성희/유성은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이윤이 (사)오연문화예술인 이사장
이은화/정인희 (주)한술교육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주)언어문화인 대표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시은/김순건

이호순/김명순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상규/정효정

임인선/새인호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한주/김윤선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정승림/한정복 (주)패션이탈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림/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정은경/박민걸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원의원 이사

정인택/유경희

정은기/박인숙 (주)한국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철

최병주/박인수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론재단 이사장

최병주/박종길

최은희/연형모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탁순희

안행희/연형모 (주)삼화 F&F 회장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한영무/최정자

홍애자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황광석/조영순

이매희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가치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동농원갈비 대표

김홍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박미영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백선정

오미주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이기영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명예회원

박명숙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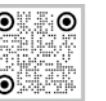
회장 황광석
부회장 김연태, 최은희, 윤영상
이사 김연태, 윤영상, 김명순, 김상한, 허용무,
김선애, 최은희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2026.5.8.FRI
5PM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멈춰 있던 공간에서 문화가 흐르는 정원으로

성남 곳곳에 자리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공간을 살펴보는 코너!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한때 주민 기피 시설이었던 하수처리장에서 음악이 흐르는 뮤직홀로,
사랑이 가득한 웨딩홀로 다시 태어난 특별한 장소입니다. 맑은 물과 빛이 흐르는 예술과 생명의 공간,
성남물빛정원을 만나 봅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수인분당선 오리역 인근에 있는 오리공원. 성남 토박이분들 이라면 이곳에 하수처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테지요.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T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지만,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의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폐쇄되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그러던 2025년 9월, 드디어 '성남물빛정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성남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남물빛정원은 옛 하수처리장 건물과 시설들을 리모델링한 150석 규모의 실내악 전용 뮤직홀과 편의시설, 두물길 산책로, 카페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나새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공연부터 다양한 음악 교육강좌 등 시민들

에게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을 선사합니다.

또 성남물빛정원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도 새롭게 활용될 예정인데요, 바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이색 야외 공공예식장 '성남 솔로몬 웨딩홀'입니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 시민이라면 대관료 없이 이곳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공간에서 이제는 음악과 휴식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흐르는 문화 공간으로! 성남물빛정원에서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새로운 풍경을 만나 보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02

공영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문의: 031-729-2997